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논술전형 자료집



2023학년도 논술전형 지원자료집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74년 전통의 **단국** 창의와 융합으로 **혁신인재**를 키웁니다

- ▶ ‘전교생 SW융합인재’
SW코딩 강좌
2만 3천명 이수
- ▶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구축
‘누구나 전공 가능한 바이오헬스’
- ▶ 교육 혁신 200억원 투입
온·오프 하이브리드 캠퍼스 구축
- ▶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AI) 캠퍼스 구축
- ▶ 입학부터 취업까지
‘나만의 성과관리시스템
YOUNG熊 STORY’ 제공
- ▶ ‘청년 창업 중심지’
창업동아리 1천만원 지원 등
창업 친화 캠퍼스 구축



CONTENTS



PART I 단국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 2

PART II 인문계열 논술고사 · 8

PART III 자연계열 논술고사 · 76

PART IV 논술고사 준비 Tip · 118

「단국대학교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논술전형자료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에 대한 안내사항과 더불어, 계열별 유형과 특징, 실제 기출문제와 가이드 답안, 강평영상까지 함께 제공하므로 수험생의 스스로 학습교재, 선생님의 논술지도서로 다양하게 활용가능 합니다. 합격생들의 생생한 후기와 고교 선생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분석내용도 더해져 있으므로, 논술전형자료집을 충분히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 본 자료집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PART

I

단국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 논술고사 바로 알기 |

사교육 없이도 합격 가능한 논술!

-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위주로 출제, 수능 공부만으로도 논술고사 대비로 이어집니다.
-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문제를 검토합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의논술고사(7월 예정)와 논술전형자료집을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인문은 유형파악! 자연은 수학중심!

- 인문계열은 유형을 파악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의논술고사의 문제유형을 주목하세요.
- 자연계열은 수학문제만 출제됩니다.
- 수능 수학 기준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은 '미적분' 위주로 출제됩니다.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을 좌우!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학생부 석차등급 간 점수차가 크지 않으므로 논술점수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국어국문학과*	8	전자전기공학부*		39
사학과*	8	고분자시스템 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9
철학과	3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8
영미인문학과	5	토목환경공학과*		14
법학과*	16	기계공학과*		15
정치외교학과	6	화학공학과*		19
행정학과*	8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10
도시계획·부동산학부	8		건축공학전공*	9
커뮤니케이션학부	11	소프트웨어학과*		19
상담학과	5	컴퓨터공학과		11
경제학과*	10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
무역학과*	7	정보통계학과		6
경영학부*	31	산업보안학과		4
한문교육과	4	수학교육과		9
특수교육과	6	과학교육과(물리, 생물)		4

- *는 비사범계열 학부(과)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전형방법

전형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논술우수자	30	70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기본점수는 없으며, 학생부 교과성적과 논술고사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선발합니다.
- 학생부 교과성적이 산출불가한 경우 비교내신을 적용합니다. (4p 참조)
- 동점자 발생 시 논술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 반영교과 및 비율

계열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활용지표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	30	20	30	20		석차등급 (9등급)	• 전 학년 동일하게 적용 ▶ 재학생 : 3학년 1학기까지 ▶ 졸업생 : 전 학년 • 반영교과 내 학생이수 전과목 반영
자연	20	30	30		20		
건축학전공(5년제)	30	30	30	10			

- 세부반영방법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지원 가능)

▣ 석차등급 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9	98	97	96	95	70	40	0

- 논술 반영비율이 높고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는 작아 논술고사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예: 학생부 교과성적을 30% 반영하므로 1등급과 6등급 학생의 실제 점수 차는 100점 만점 기준 1.5점에 불과합니다.)

유형별	학생부 교과성적 30% 적용	논술성적 70% 적용
1등급 수험생	30점	0~70점 (기본점수 없음)
3등급 수험생	29.4점	
5등급 수험생	28.8점	
6등급 수험생	28.5점	

▣ 비교내신 대상자 및 적용 방법

적용대상	적용방법
-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학생부 반영 교과과 1개라도 없거나 국내 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자	논술고사 점수를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평가내용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고사시간
인문계열	- 평가내용 :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3문제 -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120분
자연계열	- 평가내용 :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각 문제별 소문항이 있을 수 있음) - 출제범위 :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수능 수학 기준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은 ‘미적분’ 위주로 출제됩니다.
- 출제범위는 해당 교육과정 내 공통교육과정을 포함합니다.

☑ 전형일정

기간	장소	모집인원	
2022. 11월 중(예정)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계열	136명
		자연계열	179명
		합계	315명

- 논술고사는 계열별로 고사일이 다를 수 있으며 오전/오후로 구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모집요강 참조)
예) 경영학부(오전), 법학과(오후) / 기계공학과(오전), 수학교육과(오후)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고사 3일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장학안내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
성적우수(논술우수자)	모집단위별 입학총점 상위 10% 이내 ※ SW융합대학 제외	수업료 50%
SW유망주(논술우수자)	개별 기준에 따른 정액 차등지급 ※ SW융합대학(세부기준 홈페이지 확인)	[A기준] 6명, 300만원 [B기준] 11명, 200만원 [C기준] 11명, 150만원

※ 상기 장학금은 2022학년도 기준이며, 2023학년도 장학금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논술고사 안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가이드 답안을 철저히 분석한 뒤
강평영상을 반복학습하는 것

2023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난이도 등은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의 모의논술고사에 반드시 응시하는 것입니다.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가이드답안을 철저히 분석한 뒤, 강평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정	6월 중	7~8월 중	8월 중
내용	모의논술고사 일정 안내	모의논술고사 응시	가이드답안 및 강평영상 공개

▣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2021학년도 논술고사 강평 영상

※ 2022학년도 논술고사 강평영상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강평 영상>



[인문]



[자연]

<2021학년도 논술고사 강평 영상>



[인문]



[자연]

2022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최종등록자 성적

계열	구분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논술 접수	학생부등급		
						평균	평균	최고	최저
인문	오전	철학과	3	78	26.00	81.00	5.21	5.01	5.41
		법학과	18	482	26.78	80.56	4.41	3.41	5.48
		경제학과	11	284	25.82	82.50	4.49	3.48	5.89
		무역학과	8	215	26.88	79.44	4.62	4.03	5.38
		경영학부	32	969	30.28	81.17	4.43	3.32	5.73
	오전 계		72	2,028	28.17	80.93	4.63	3.85	5.58
	오후	국어국문학과	8	233	29.13	73.63	4.15	2.16	5.58
		사학과	8	229	28.63	72.25	4.10	3.28	4.92
		영미인문학과	5	156	31.20	70.40	5.07	4.72	5.68
		정치외교학과	6	191	31.83	73.17	5.20	4.25	5.99
		행정학과	8	243	30.38	73.81	4.44	3.25	5.35
		도시계획·부동산학부	11	349	31.73	73.05	4.43	3.86	5.45
		커뮤니케이션학부	11	470	42.73	78.41	4.59	3.31	5.76
		상당학과	5	147	29.40	73.30	4.49	3.92	5.18
		한문교육과	4	94	23.50	68.50	5.25	5.03	5.64
		특수교육과	6	123	20.50	70.17	3.97	3.25	4.88
	오후 계		72	2,235	31.04	72.67	4.57	3.70	5.44
자연	오전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11	134	12.18	48.00	5.19	4.25	6.43
		토목환경공학과	16	183	11.44	53.16	4.73	3.52	5.91
		화학공학과	19	239	12.58	51.08	4.69	3.15	5.87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10	152	15.20	53.85	3.98	2.94	5.52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11	129	11.73	45.86	4.78	3.40	6.29
		소프트웨어학과	19	299	15.74	55.61	4.21	3.01	4.98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	35	11.67	49.67	4.34	3.82	4.62
		산업보안학과	5	63	12.60	55.10	5.12	3.30	6.41
		과학교육과	4	38	9.50	51.63	5.08	4.33	6.51
	오전 계		98	1,272	12.98	51.55	4.68	3.52	5.84
	오후	전자전기공학부	39	539	13.82	44.77	4.55	2.98	5.89
		고분자시스템공학부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8	98	12.25	44.50	4.48	3.89	6.15
		기계공학과	15	189	12.60	39.73	4.68	3.74	5.76
		컴퓨터공학과	11	211	19.18	51.41	4.45	3.49	5.53
		정보통계학과	6	84	14.00	35.00	3.86	3.10	5.54
		수학교육과	9	122	13.56	61.33	4.06	2.91	5.37
	오후 계		88	1,243	14.13	46.12	4.35	3.35	5.71

PART

II

인문계열 논술고사

- 1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 2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3 2022학년도 논술고사

01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무엇을
평가하나요?

- 대학교육에 필요한 범교과적인 지식과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 기초사고력, 분석력, 종합력, 적용력, 비판력 등을 평가합니다.
-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단편적 지식이 아닌 논리적, 체계적 지식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나요?

- 평가목표를 명료하게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식과 사고의 성격을 구체화, 유형화 했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국어, 사회 및 도덕분야를 중시하여 출제 하며, 특정 교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 변별력 있는 문제를 위해 청소년 권장 교양도서를 일부 활용합니다.
-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수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고등 정신
기능 평가

- 출제문제의 유형 제시를 통해 논술고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주제어 제시 및 요약형
 - 논지 활용 설명형(또는 비교 설명형)
 - 논지 활용 문제해결형
- 논술도 중요하지만 국어 규범 능력(맞춤법, 표준어, 문법적 문장)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남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유형	문제형식(범례)	분량
주제어 제시 및 요약형	제시문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요약하시오.	200자
	찾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다른 제시문을 해석 및 설명하시오.	400자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설명형)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를 설명 또는 평가(비교설명)하시오.	600자
논지 활용 문제해결형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혹은 [가],[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를 비판하시오.	600자

※ 2022학년도 기출문제 기준

-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 제시문은 서술문 혹은 도표(자료)가 제공됩니다.
- 연습지 3매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바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감쪽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 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찍으려 한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감정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간다. …… 중략 ……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감정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 :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출처 : 방민호 외, 『고등학교 독서』(출제진 재구성)

[나]

이것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하다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 중략 ……

보호와 관심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중략 ……

만일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은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중략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 일 것이다. 이해는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외경 :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대]

할아버지의 입관. 할머니와 자식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다듬으면서 운다.

눈길, 선산으로 향하는 큰아들. 무덤가에서 불을 피운 할머니의 뒷모습. 할머니는 전에 시장에서 사 두었던, 어릴 때 죽은 자식들의 내복을 태운다.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의 눈사람.

할머니 :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가서 만나거든, 아이들이 올 거예요. 오거든 옷 한 벌씩 입혀요. 그 전에 나하고 약속 했잖우.

할머니는 다시 할아버지의 옷을 태운다.

할머니 : 할아버지, 가져가서 내년 봄 되면 입으세요. 내년 봄날 따뜻해지면 입으세요. 이건 할아버지 러닝셔츠야. 날 따시거든 입어. 내가 없더라도 잘해요.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할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는 거야.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의 눈사람.

할머니 : 할아버지요, 나는 집으로 가요. 나는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 출더라도 참고.

할머니는 걷다가 무덤을 다시 뒤돌아보고 흐느낀다. 흐느끼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할머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흐느낀다.

할머니 :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세상 불쌍해. 할아버지 불쌍해 죽겠네. 할아버지 생각나니까는, 할아버지 생각을 누가 하나, 나밖에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페이드아웃*)

* 페이드아웃 : 영상에서 화면을 점점 흐리게 하여 결국에는 소거하는 연출 기법.

출처 :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10점)

(20점)

A blank grid for plotting a graph. The vertical axis (y-axis) is labeled from 30 to 420 in increments of 30. The horizontal axis (x-axis) is labeled from 1 to 12 in increments of 1. The grid consists of 12 columns and 13 rows of squares.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 통합적 읽기’ 부분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랑의 역사」라는 읽기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사랑의 성격을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랑과 성의 관계’ 부분에서 ‘사랑과 성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라는 논술 과제의 제시문으로 나온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을 참고하되, 실제 해당 부분이 수록된 『사랑의 기술』 원전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생전에 사랑했던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것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동반자들’ 부분에서 ‘문학, 그 인접 분야를 만나다’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활용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시나리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26~27쪽.
- [나] : 에리히 프롬(2019),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47~51쪽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70쪽 관련.
- [다] : 류수열 외(2019), 『고등학교 문학』, 금성출판사, 115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사랑’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가 달라서 동상이몽의 현상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자아를 찾고 확산하기 위해 사랑을 유용한 가치로 변모시키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자기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대와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사랑의 성격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성격은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통해 쉽고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호는 책임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또한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게 된다. 이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이 된다. 이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제시문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생전에 애뜻하게 사랑했던 어느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하고 있다. 무덤가에서 할머니는 죽은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는데, 이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세상에서도 깨끗이 잘 입고 다니기를 원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저세상에서 보고 싶더라도 잘 참아내기를 할아버지에게 당부하고 할머니 또한 그렇게 다짐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무덤을 떠날 때에는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 결국은 주저앉아 슬피 한다. 자신보다 먼저 죽은 할아버지가 몹시 불쌍하고 이제 세상에는 할아버지를 추억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이다. 생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기에 생사의 이별 또한 애뜻하고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제시문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가 달라서 동상이몽이 되기도 하고, 자아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을 유용한 가치로 변모시키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자기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현대 사회에서 유대와 소속감,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사랑의 성격에는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 책임이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존경이다. 또한 존경은 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이 된다.

[다]는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것으로 죽은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할머니는 생전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보고 싶더라도 참아내리라 다짐하였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날 때에는 주저앉아 슬퍼하면서 죽은 할아버지를 연민하고 할아버지를 추억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Note

문제 2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에게 양식(良識)은 가장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람들 모두 스스로가 양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대체로 자신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불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태생적으로 동등하다고 입증된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의견의 다양성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동일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영혼은 가장 훌륭한 미덕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악덕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언제나 곧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면, 달려가지만 그 길을 벗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나는 나의 그 어떤 면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민첩하게 판단하거나, 명확하고 독특하게 상상하거나, 완벽하고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러한 것들 외에 정신의 완벽함에 기여하는 특성들을 알지 못한다. 이성 또는 판단력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점수와 구별해 주는 것이므로, 이성은 개개인들에게서 완벽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종의 탁월함과 열등함은 오직 우연에 의해 평가되며, 개별적인 형태나 자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싶다.

출처 : 데카르트, 『방법서설』(출제진 재구성)

[나]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하고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말하는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략.....

합리적 선택은 소비자나 기업 등 각 경제 활동 주체의 차원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 활동의 주체는 선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공,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효율성 :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의 원칙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M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이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미래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세대로 새로운 세대의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MZ세대 2,233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 성향'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 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인간이나 동물·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은 피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공정 무역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며, 제3세계 노동자들을 인식하자는 소비 운동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 실험 반대 바람이 불고 있다. 동물 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 않고, 또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법을 사용함으로써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 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

공정 무역은 개발 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좀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 가성비 소비 : 지불한 가격 대비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 행위

** 크루얼티 프리 제품 : 비동물 실험 인증을 받은 제품

출처 : 『내외경제TV』, 2021. 6. 11. (출제진 재구성)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3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명하고 이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 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 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통합사회』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및 [10통사 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같은 요소들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경제』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및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 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 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 논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데카르트, 권혁 옮김(2019), 『방법서설』, 돌출새김, 18~19쪽.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34쪽 관련.
- [나]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쪽.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40쪽.

- [다] : 『내외경제TV』, 2021. 6. 11., 「가성비보다 가심비 선호하는 MZ세대, 소비 패턴도 스마트하게」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7~20쪽 관련.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40~141쪽.

■ 평가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글이다. 모든 인간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인 양식이나 이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의사 결정이 달라지므로 이성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경제 활동 주체인 인간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인간 본성으로서의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 결정, 그리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사 결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5점)

[다]는 경제 주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소개이다. [가]와 [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은 관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심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 패턴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 등이 있다. 가성비 소비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소비이고, [다]의 두 번째 단락 이하를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윤리적 소비는 인간이나 동물, 환경 등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소비 운동으로, 여기에는 무차별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공정 무역 등이 해당한다. 소비자가 가성비 소비만을 추구할 경우,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에 나타난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7점을 부여함
 - 윤리적 소비는 소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이성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 그들의 관심이 효율성에 있는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소비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윤리적 소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피하고 공정 무역과 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Note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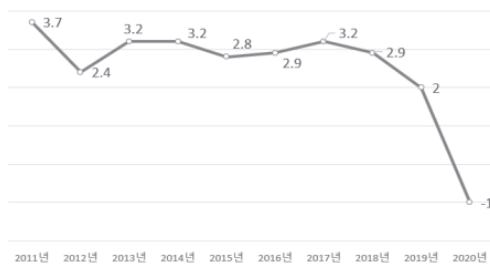
오늘날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이란 부, 권력, 지위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을 가리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안정과 통합 등의 여러 분야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이룰 수 있다. 초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경제 발전 역시 조화롭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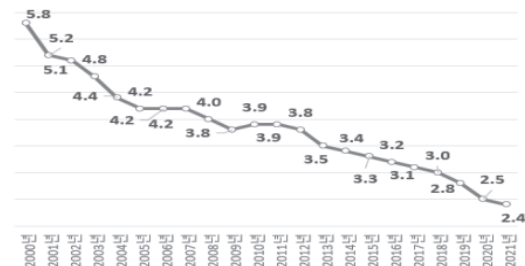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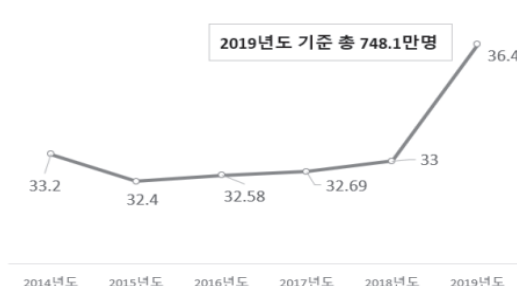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2021.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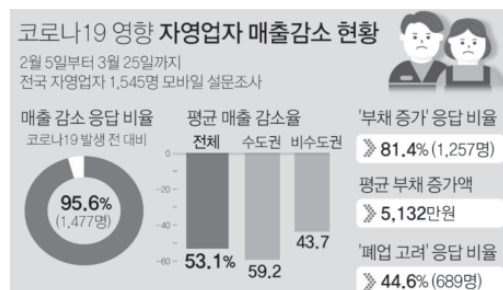
* 잠재 성장률 :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증가율을 의미함.

출처 : OECD, 2020.



〈비정규직 근로 비중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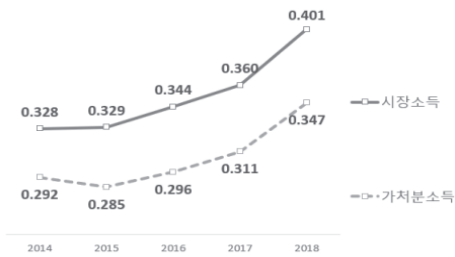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9.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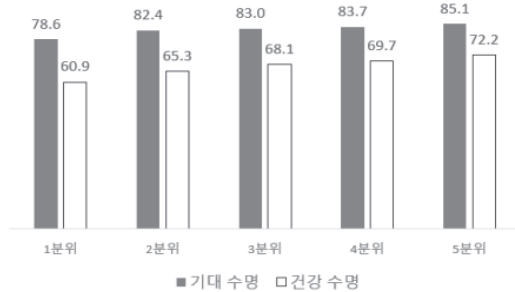
[다]



<국내 지니 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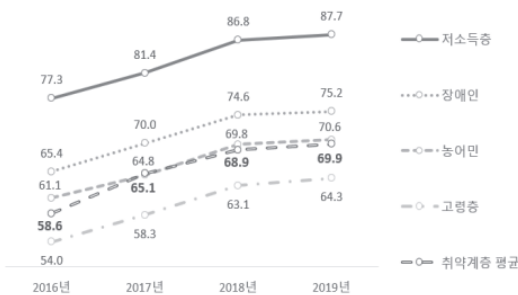
* 지니 계수 :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가 0,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1임.

출처 : 통계청, 2018.



<소득분위별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단위 : 세>

* 기대 수명 :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지 추정하는 기대치를 의미함.
 ** 건강 수명 : 특정 나이의 사람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해수를 의미함.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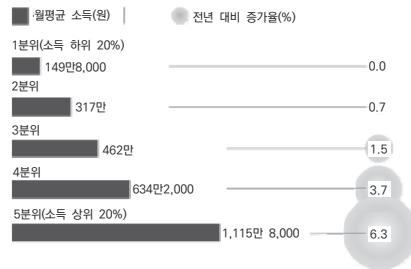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단위 : %>

* 위 수치는 비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소외(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준임.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분기 소득 수준별 월평균 소득



<2020년 1분기 소득 수준별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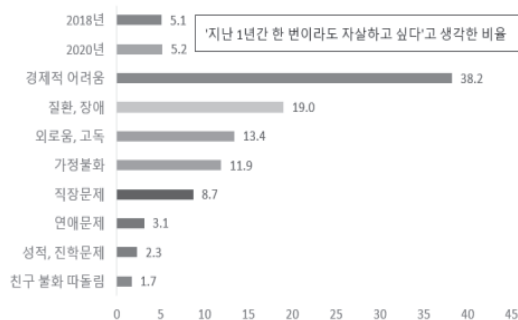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0.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가구소득별	사교육비(월평균, 원)	사교육 이용률(%)
200만 원 미만	9만9,000	39.9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2,000	50.5
300만~400만 원 미만	19만6,000	60.3
400만~500만 원 미만	25만7,000	67.8
500만~600만 원 미만	31만	71.9
600만~700만 원 미만	35만7,000	74.2
700만~800만 원 미만	42만5,000	79.9
800만 원 이상	50만4,000	80.1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출처 : 교육부, 2020.



<자살 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20.

[라]

문제는 2030세대 1인 가구가 경제적 빈곤으로 고시원, 원룸과 같은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심리적 고립 뿐 아니라 물질적 고립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양모(30) 씨는 올해 세 번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가족과 떨어져 월 25만원짜리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 양씨는 “2평도

안 되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벽만 보며 살다 보니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1. 3. 27.

“(이사 결정을) 빨리 좀 해주세요”라는 마지막 독촉. 기댔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지만 할머니는 그저 “네”라고 했다. “저기서 혈린다 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혈린대요.” 경기 광명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김선이(가명·79) 할머니는 지난 전세살이 두 번을 재개발 철거로 인해 집을 빼야 했고, 이번에도 그렇다. 세 번째다. 10여 년 전,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샀던 집을 사기로 잃은 후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이제 가난한 그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출처 : 『한국일보』, 2021. 6. 9.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1. 4. 19.

지난달 3일 만난 최길녀(여·가명·67) 씨는 3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 병명조차 알지 못한다. 최 씨는 갑상선암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 강명석(가명·69) 씨와 함께 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17, 18세 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 보호자다. 아파트 경비원과 요양 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두 부부에게 지난해는 실직과 경제적 빈곤, 질병이 한꺼번에 닥친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 시대 노년층 격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노인 일자리, 소득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 격차는 육체적·정신적 문제와 연결된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3. 4.

(4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및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및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같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영역의 성취기준 [12한지04-02]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도시권의 형성 및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 (3) 국가와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와 같은 요소들과 연계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82쪽.
- [나] : 한국은행(2021),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93쪽 관련.
OECD(2020),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05쪽 관련.
- 통계청(2019), 비정규직 근로 비중 현황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3쪽 관련.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70쪽 관련.
- 『연합뉴스』, 2021. 3. 29., 「[그래픽]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80쪽 관련.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106쪽 관련.
- [다] : 통계청(2018), 국내 지니계수 추이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통계청(2020), 2020년 1분기 소득 수준별 월평균 소득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보건사회연구원(2019), 『보건복지포럼』, 2019년 12월, 통권 제278호, 「포용복지와 건강 정책의 방향」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4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33쪽 관련.
 - 교육부(2020),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9쪽 관련.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34쪽 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85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96쪽 관련.
 - 통계청(2020), 자살 충동 여부 및 이유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51쪽 관련.
- [라] : 『중앙일보』, 2021. 3. 27., 「“방안 가득 쓰레기·취업 책 남기고…” 취약한 2030 심리·물질적 고립 이
중고」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55쪽 관련.
 - 『한국일보』, 2021. 6. 9., 「헐리고 또 헐리고... 개발 광풍에 내쫓긴 노년의 눈물」
 - 신정엽 외(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113쪽 관련.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1쪽 관련.
 - 『동아일보』, 2021. 4. 19., 「끓으며 버티는 청년…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11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서울신문』, 2021. 3. 4., 「떠난 아들이 남긴 손주 보며 돈 없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 방구석에 갇힌 노년의 ‘忍生’」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11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5쪽 관련.

■ 평가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의 관점에서 [나]가 원인이고, [다]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내용이 사회 불평등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나]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다시 [다]의 건강 격차, 사교육 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원인으로, [다]를 결과로 정확히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라]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의 사회 불평등 문제와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나타난 빈곤, 소득 양극화, 공간 불평등,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청년 빈곤,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불균형 완화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 마련, 장기 전세 주택 등의 활용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평등 보장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약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질적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하는 등의 지속 가능 발전 대책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희소가치 소유 정도 차이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정이 함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나]와 같이 최근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지속 가능 발전이 힘들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다]와 같이 소득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다시 건강 격차, 사교육 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킨다.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청년 빈곤 등과 같은 소득 불균형 문제와 심리적 빈곤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장기 전세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빈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Note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시와 그림, 글씨 등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19세기 조선의 문인 화가 추사 김정희는 헌종 6년(1840년)에 제주도 유배 간 뒤 병약한 부인 예안 이 씨가 걱정되어 편지를 40여 통 주고받는다. 이 씨 부인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양 간 지 2년 후인 1842년 11월 13일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별세 이튿날인 14일과 18일 연달아 부인 앞으로 편지를 보낸다. 부인의 부고는 두 달 뒤인 이듬해 1월 15일에야 제주 땅에 도착했다. 추사 김정희는 뒤늦게 부인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해 하며 도망시(悼亡詩)*를 썼는데, 이 시에 담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국인의 사랑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那將月姥訟冥司 어찌하면 월하노인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나 장 월 모 송 명 사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그대와 나 자리 바꿔 태어날까?
내 세 부 직 역 지 위
我死君生千里外 나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산다면
아 사 군 생 천 리 외
使君知我此心悲 이 마음 이 슬픔을 그대가 알 터인데
사 군 지 아 착 심 비

여기에는 저승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신선인 월하노인에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는 서로 바꿔 태어나게 부탁해서 상대방을 제주도처럼 천 리만큼 먼 곳에 두고 먼저 죽어, 사랑하는 임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게 하고 싶다는 애절함이 담겨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자신이 겪은 아픔을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죽은 부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보여 주는 눈물 젖은 시이다. 옛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좀체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자식을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그 슬픔을 애써 삭이며 마음속으로만 우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 애통한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라도 꿈꿔 보는 것이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역설의 표현 방식을 접할 때, 독자들은 우선 통념이 전복되면서 나타나는 신선함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왜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느껴 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면서 더 큰 감동을 얻는다.

* 도망시(悼亡詩) :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

출처 : 류수열 외, 『고등학교 국어』(출제진 재구성)

[나]

클림트가 그린 <철학>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인간 이성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류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태초의 신비며 삶의 근원적인 불가해성*이 강조된 느낌이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둥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인간의 시간을 따라 어린이, 젊은이, 노인 순으로 얹혀 있는데 어느 하나 기쁘거나 환희에 찬 사람이 없다. 놀라고 당황하거나 머리를 싸매고 고통 받고 있다. 아래로 갈수록 꼭 밤새 술이나 먹고 놀다가 이튿날 시험지를 받아 들고는 어제 내가 과연 뭘한 건가 고뇌하는 대학생의 모습을 닮았다. 그 오른쪽에 몽환적으로 표현된 형체가 지식 혹은 철학인데, 삶의 근원적 모호함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들을 전혀 치유해 주지 못한다. 지식이 나 철학의 상징이라면 뭔가 명확하고 강단 있게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안개 속 버드나무 귀신처럼 흐릿하고 모호

하다. 인간 군상을 응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고통에 닿지 못하는 느낌이고,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알게 뭐야!’ 감성이 느껴진다면 너무 지나친 걸까. ……(중략)…… 개인적으로 <철학>이 꽤 근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뼈 때리는 통쾌함은 <의학> 쪽이었다. 의학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클림트는 여기다 대고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조했다. 죽은 자들이 건넌다는 망각의 강, 레테를 배경으로 오른쪽에 죽음들이 넘실거리며 모여 있고 왼쪽으로는 아직 삶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젊은 육체 하나가 동실동실 떠내려왔다. 그 모든 것의 앞에서 히기에이아*가, 망자가 마시면 모든 기억을 잊게 된다는 레테의 강물이 든 접시를 들고 뱀을 두른 채 약간은 차가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는 따뜻한 나이팅게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약을 드시지요.’ 라고 하며 약사발을 들고 서 있는 상궁 마마님 같은 느낌이다.

* 불가해성 : 이해할 수 없는 성질.

* 히기에이아 : 의학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딸로 건강과 위생의 여신.



클림트, <철학>



클림트, <의학>

출처 : 이진민,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출제진 재구성)

[다]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는 당시에 부(富)를 축적한 평민 계층이 지배 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 변동기였다는 사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친한 출신에 대한 지배 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 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 후 더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승낙한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史實)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친한 출신의 바보 온달을 선택한 평강 공주의 결단과 마침내 온달을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 공주의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달 설화가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농촌 청년의 우직한 충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시되는 능력이란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낙오와 좌절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숨겨진 칼처럼 매우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갖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편안함’, 그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

출처 : 고희진 외, 『고등학교 독서』(출제진 재구성)

(10점)

A blank coordinate grid with a vertical axis on the right. The axis is labeled with values 30, 60, 90, 120, 150, 180, and 210. The grid consists of 14 columns and 18 rows. The bottom 4 rows (from 180 to 210) are shaded light blue.

(20점)

A blank grid for plotting a graph. The vertical axis (y-axis) is labeled from 30 to 420 in increments of 30. The horizontal axis (x-axis) is labeled from 1 to 12 in increments of 1. The grid consists of 12 columns and 13 rows of squares.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및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1)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미술』 교과 ‘(3)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듣기·말하기’ 부분에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랑 대 러브(love)」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클림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우직한 어리석음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감상적 읽기’ 가운데 ‘읽어 읽기’의 과제로 나온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류수열 외(2018), 『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125~126쪽.
- [나] : 이진민(2021),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 한겨레엔, 136~138쪽.
-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02~105쪽 관련.
- [다] : 고희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92~93쪽.

■ 평가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역설’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역설’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추사 김정희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해 시를 지었는데, 애끓는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오히려 먼저 죽는 복수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가 지은 시에서 역설의 표현 방식을 접한 독자들은 통념이 전복되어 신선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왜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느껴 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클림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철학> 그림에서는 인간 이성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류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태초의 신비며 삶의 근원적인 불가해성이 강조된다. 지식이나 철학의 상징을 마치 안개 속 버드나무 귀신처럼 흐릿하고 몽환적으로 표현하여 인간 군상을 외면하는 듯한 감성을 느끼게 만든다. <의학> 그림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목적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조한다. 죽은 자들이 건넌다는 망각의 강, 레테를 배경으로 죽음들이 넘실거리며 모여 있다. 의술의 신 히기예이아는 레테의 강물이 든 접시를 들고 차가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을 치료하는 따뜻한 나이팅게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약이 든 약사발을 들고 있는 상궁 마마님의 느낌을 준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우직한 어리석음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한 글이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온달을 선택한 평강 공주의 결단과 온달을 용맹한 장수로 만든 평강 공주의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가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청년의 우직한 충절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을 중시하고 이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고 소망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조

금씩 변화해 나가고, 이러한 우직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경계해야 한다. 불편함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여기에는 수많은 소리와 풍경 등의 추억이 담겨 있으며 어딘가를 희망하며 쉬지 않는 것임에 반해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과 같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적 표현 방식을 설명한 이 글에서 추사 김정희는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한 시를 지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를 희망한다.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가슴속의 진정한 마음을 전한다. 역설의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통념을 전복시켜 신선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게 하여 더 큰 감동을 얻도록 한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클립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역설의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철학> 그림에서는 철학이나 지식의 상징을 위대함이나 합리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흐릿하고 몽환적이며 인간을 외면하는 듯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의학> 그림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목적과 관련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죽음이 강조되도록 표현했다.

[다]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직한 어리석음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한다. 우직한 온달과 주체적인 평강 공주 이야기에는 사회와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 담겨져 있다. 현대 사회는 경쟁적 능력을 중시하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변화해 나가고, 이러한 우직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지혜와 능력의 바탕이고 내용이다.

Note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를 각각 평가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좋은 말씨, 조화, 우아함, 좋은 리듬은 모두 좋은 성격에 달려 있네. 내가 말하는 좋은 성격이란 세상 물정에 어두운 호인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갖춘 지성을 의미하네.

……(중략)……

그림은 분명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종류의 모든 기술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네. 직조, 자수, 건축, 온갖 가재도구의 제작이 그렇고, 우리 몸과 모든 생물들의 본성 역시 그렇다네. 그 모든 것 안에 우아함과 추함이 내재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추함과 나쁜 리듬과 부조화는 나쁜 말과 나쁜 성격의 형제자매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그와 정반대인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의 형제자매들이자 모방물이라네.

……(중략)……

우리는 다른 장인(匠人)들도 감시하며 생물들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다른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우리의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수호자들은 나쁜 것의 상(像)들이라는 유해한 풀밭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날마다 야금야금 뜯어먹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혼(魂) 안에 큰 악이 쌓이게 될 것이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네.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닦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네.

……(중략)……

시가(詩歌)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은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출처 : 플라톤, 『국가』

[나]

“과학은 진리에 의해 판단되는 반면, 예술은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의해 판단된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제 낡은 이야기가 되었다. 만족감은 쾌락과 동일시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이 작품을 좋은 것으로 또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가이다. 만족스럽다는 것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이다. 좋은 아궁이가 골고루, 경제적으로, 조용히, 안전하게 적정 온도로 집을 데우듯이 좋은 과학 이론은 연관된 사실들을 단순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예술 작품이나 그 사례들은 재현, 기술, 예시, 표현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수행한다. 예술 작품은 사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상징화를 통해 미를 추구한다.

상징화의 능력이 발휘된 예술 작품은 미래의 우연성에 대처할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좀 더 먼 현실적 목적을 갖는다.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생존, 정복, 그리고 이익에 대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이 과학처럼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과학적 영감을 자극하고, 시장 가치의 실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인간 심성의 순화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킨다. 모든 가치가 현실적 유용성으로 환원된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예술의 심미적 경향을 현실적 유용성과 결합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러

한 견해를 고수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주는 만족감과 예술 작품이 추구하는 미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의 감상자가 경험하는 만족의 수준이나 양상은 물질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심미적인 경향이 공통을 불러오는가 하면 만족스럽지만 심미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의 상징화 작업을 현실적 유용성과 결부시키는 견해는 부적절하다. 상징화는 인간의 억누를 수 없는 성향으로, 인간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단순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상징화 작업을 계속한다. 심미적인 경험을 실현하는 예술가는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와 같거나 충분한 물을 발견한 후에도 끈덕지게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다. 예술은 실용적이지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충동적이다.

출처 : 넬슨 굿맨, 『예술의 언어들』 (출제진 재구성)

[다]

2003년, 한 남성이 영국의 대영 박물관 ‘로만-브리튼 전시관’에 들어갔다. 그곳은 기원후 43~411년 유물을 전시하는 곳인데, 이 남성은 이곳에 본인이 만든 작품을 걸어 놓고 도망쳤다.

그가 놓고 간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시인이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형태가 보인다. 그는 작품에 관한 해설도 붙이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 작품은 후기 정신 분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이라고 쓰여 있었다. 작품을 걸어 놓고 도망친 지 8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수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고대 미술품인 줄 알고 지나갔다. 결국, 이 남성은 박물관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몰래 전시한 작품을 찾아보세요.”

이후 뱅크시는 유명해졌고, 그가 제작하는 작품들은 박물관에 보존되거나 3만 달러가 넘는 고가에 팔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뱅크시는 실험 카메라의 한 장면과 같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2013년 10월, 뉴욕의 한 거리 노점에서 뱅크시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익명의 상인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점 상인이 파는 작품이 진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뱅크시, <쇼핑하는 원시인>



<뱅크시, 그의 작품을 단돈 60달러에 팔다>

출처 : 안혜리 외, 『고등학교 미술』

[라]

어느 사회에나 ‘좋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 기준은 사회 내에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경쟁한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각기 그 나름의 조건에 따라 제각각 욕구가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 그 나름대로 좋은 문화를 판단한다.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각기 자신에게 좋은 문화를 선택한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이나 취향에 대해 관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럴 때야 사회 전체의 문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문화라는 자신의 판단이 정말로 내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말로 그것이 나의 삶의 조건과 욕구에 합당한 것이며 진정 나의 삶을 풍요롭고 주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문화인가 하는 의문이다. 어쩌면 내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 단지 문화 산업의 광고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 행태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많은 경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특히 대중 매체와 문화 산업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문제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가장 크고 중요한 문화 소비층이 되어 있고, 따라서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이다. 미디어와 문화 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광고와 판매 전략을 동원해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문화 산업의 광고 전략에 넘어가 한낱 소비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한낱 소비자일 뿐이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문화를 판단하고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는 단지 문화의 객체일 뿐 결코 주체라 할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거기에 비슷한 상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히 '개성'을 내세운다. 세상에 모두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개성일 수 있는가. 결국 대부분 문화 산업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돈을 버는 문화 산업에만 이익이 되는 문화일 뿐이다.

좋은 문화에 대해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다지 의미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향유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가이다. 내 자신의 삶이 고립된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일진대 당연히 그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문화여야 한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문화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 쾌락이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문화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좋은 문화는 필연적으로 좋은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수반한다.

출처 : 민현식 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30점)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graph paper. It features a light gray background with a blue grid. The grid consists of small square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is a vertical axis with numerical labels starting at 30 and increasing by 30 up to 660. These labels are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grid lines. The grid itself extends across the entire width and height of the page, corresponding to these values.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아트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영국의 미술 작가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뱅크시(Banksy, 실명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가디언 언리미티드 기사에는 1974년생으로 밝히고 있다.)의 <쇼팽하는 원시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는 예술을 걸치레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행위 예술을 통해 기존의 예술이나 사회적 권위를 비판(이를 ‘제도 비판 예술’이라고 한다.)하였다.
- 이에 착안하여 이 문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과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한 비평적 글쓰기 및 올바른 문화와 예술의 향유 태도와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통합적 인식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사회과’ 관련 교과에서 지문을 직접 추출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3) 문화와 일상생활’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에서 다루어진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과 주체적 수용 자세에 대한 교과 지식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으며,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및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 ‘(3)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12미03-04]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으며,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플라톤 지음 / 천병희 옮김(2013), 『국가』, 숲, 175~177쪽.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58쪽 관련.
- [나] : 넬슨 굿맨 지음 / 김해숙·김혜련 옮김(2002), 『예술의 언어들 : 기호 이론을 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45~247쪽.
-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01~107쪽 관련.
- [다] : 안혜리 외(2018), 『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107쪽.
- [라] : 민현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196~197쪽.

■ 평가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는 예술이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술과 과학은 상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과학처럼 현실적 유용성에 기능하기보다는 심미적 경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은 실용적이지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충동적이다.

[다]는 벅크시의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작품 판매 행위를 통해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겉치레로 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문항 해설 2 (10점)

[다]에서 벅크시의 행위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판단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에서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삶 속에서의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로서 문화 예술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가]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해 젊은이의 혼(또는 정신)을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미적 경험을 실현하는 예술은 실용성이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충동적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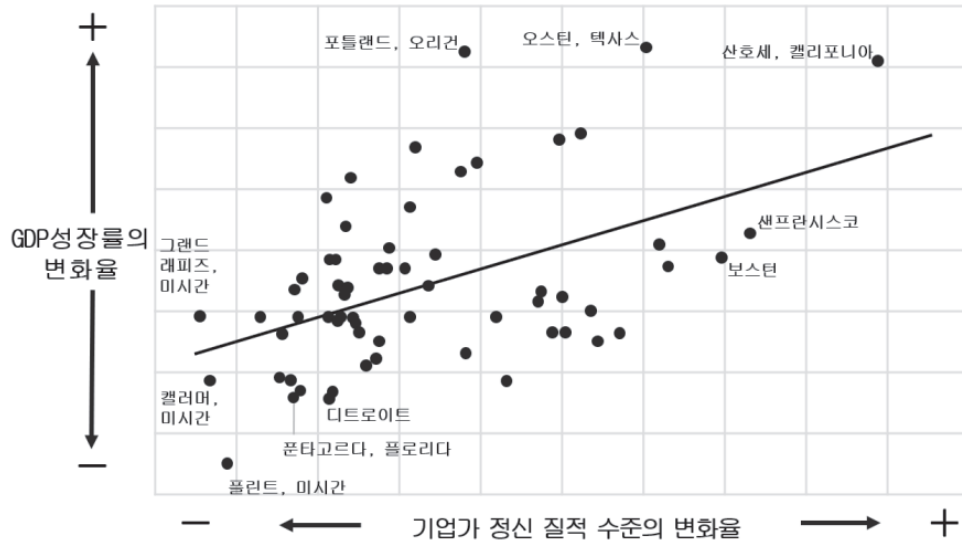
때문이다. [다]에서 뱅크시는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겉치레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가]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의 작품 전시와 판매 행위는 미적 체험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반면 [나]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의 행위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상징화 작업을 통해 감상자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경험과 유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의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이다. [다]에서 뱅크시는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한 판단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뱅크시의 행위는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의 개성 발견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좋은 문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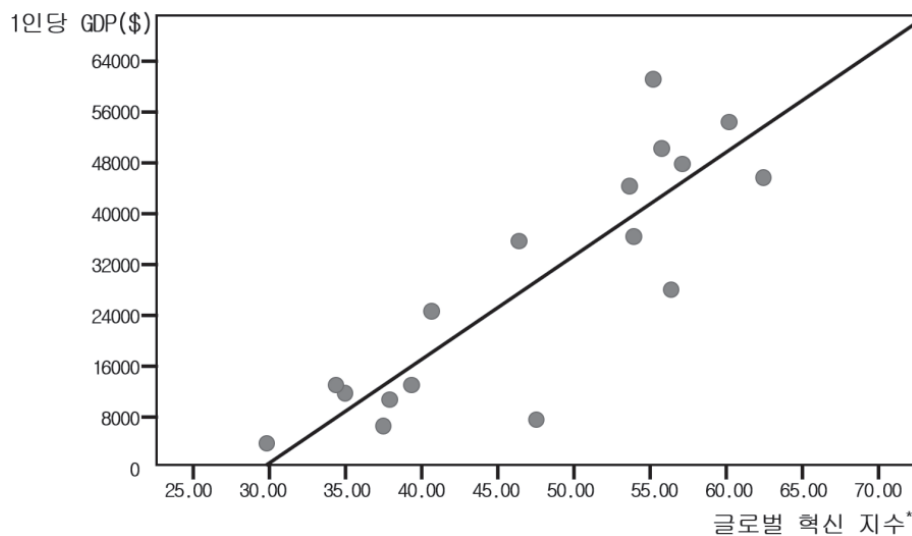
문제 3 [가]를 바탕으로 [나]의 문제를 모두 설명하고, [다]를 이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미국 주요 도시별 기업가 정신의 질적 수준과 미래 경제 성장의 관계〉

출처 :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020(출제진 재구성)



〈주요 국가별 혁신 지수와 1인당 GDP 관계〉

* 글로벌 혁신 지수 : 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 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인 혁신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

출처 : 『Management Studies and Economic Systems』, 2016(출제진 재구성)

[나]

연도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8월 3일 기준)
한국	2	2	2	3	6	11	11	11
미국	27	51	65	96	151	212	242	388
중국	5	22	33	55	90	101	119	157

〈한국, 미국, 중국의 유니콘 기업* 개수 비교〉

*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창업 기업을 의미함.

출처 : CB Insights 발표 자료, 2021(출제진 재구성)

연도	2000~2007	2007~2020	2020~2030(전망)	2030~2060(전망)
한국 1인당 잠재 성장률* (단위 %)	3.8	2.8	1.9	0.8

국가	한국	미국	일본	OECD	G20
1인당 잠재 성장률 (2030~2060년 기준, 단위 %)	0.8	1.0	1.1	1.1	1.0

〈한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 전망〉

* 잠재 성장률 : 경제 성장 요소인 노동력, 자본, 생산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출처 : OECD, 2021

[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말하는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관료제는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관료제는 업무 수행을 하는 데 규칙과 절차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목적보다 규칙과 절차 준수가 우선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직된 조직 운영은 빠른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료제는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어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조직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 무사안일주의가 생기기도 한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부는 제도 개혁,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부과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다.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를 적용하고, 한국 소비자

원 또는 공정 거래 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 기관을 운영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한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대형 마트의 쇼핑 카트 정리대에 가 보면 쇼핑 카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쇼핑 카트를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은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쇼핑 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납 시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대형 마트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쇼핑 카트를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출처 :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기업의 목적은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이다.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조직과 조직 문화를 바꿔 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가게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 이외에도 기업은 가게가 제공하는 토지와 노동, 자본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가게에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 김중호 외, 『고등학교 경제』

[라]

[상황 1]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칼끝이 스타트업까지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규모나 성장세, 업종과 상관 없이 전방위 규제에 나서면서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다. 벤처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고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는 역설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는 기업.

출처 : 『조선일보』, 2021. 9. 23.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본으로 한 대형 정보 기술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특정 분야에서 지배력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혁신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때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각광 받은 이들 빅테크의 상황은 달라졌다. 지배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 무소불위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거래 업체에 갑으로 군림하며, 경쟁업체 진입을 막는다. 빅테크는 한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려고 한다. 빅테크의 횡포는 다수의 참여자가 상생해야 하는 산업 생태계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출처 : 『경향신문』, 2021.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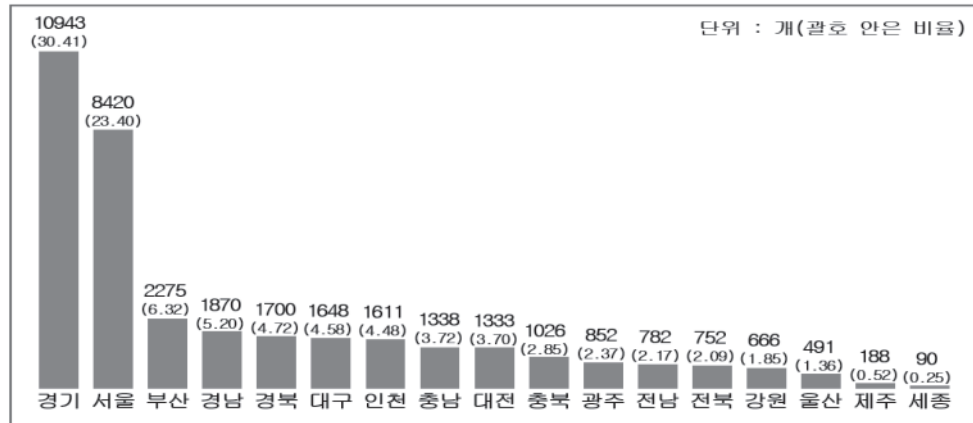
[상황 2]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다니던 스타트업을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다닌 지 불과 석 달 만이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중인 인공 지능(AI) 기술 회사였고 정부와 각종 글로벌 경진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유명했으며 유망해 보였다. 국책 은행에서 투자 자금도 유치했다. 그는 재수·삼수 끝에 꿈을 이뤘다. 첫 출근 전날, 그는 직원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빠른 의사 결정, ‘원팀’으로 움직이는 일사불란함 등 같은 스타트업 문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본 AI 기업은 그가 꿈꾸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대기업 출신 대표는 회사 규모가 커지자 같은 대기업 출신 간부들을 중간 관리자로 영입했다. A 씨는 “대기업 출신 관리자들이 비선 실세처럼 행동했다.”라며 “그들은 그런 게 절차이자 위계질서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게 대표의 장점이었지만 조직

이 커지면서 장점은 단점으로 바뀌었다. 직원 수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도 대표는 프로젝트 제안서 오탈자까지 직접 검사했다고 한다. A 씨는 “창업 멤버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고 이제는 막 졸업한 개발자와 군 대체 복무를 하는 프로그래머들만 남은 상황”이라며 “기대를 많이 한 내 잘못일지 모르지만 마치 혁신 기업에서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라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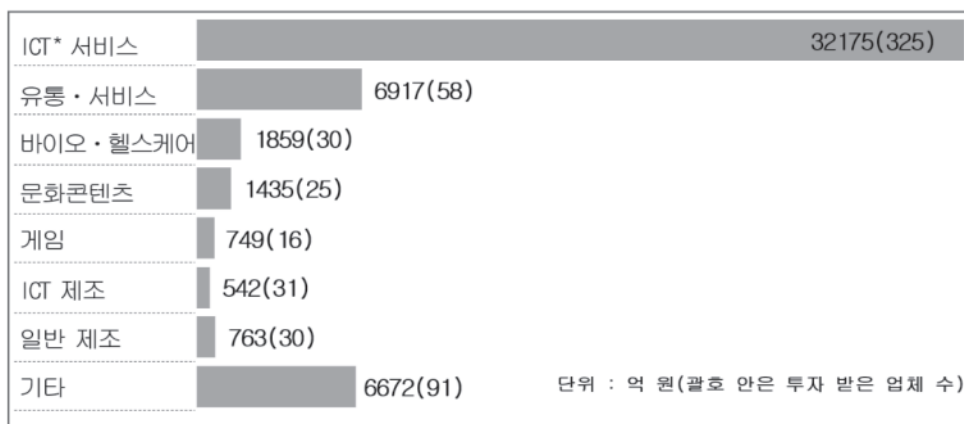
출처 : 『매일경제』, 2021. 8. 4.

[상황 3]



<지역별 벤처 기업 현황(2018년 6월 말 기준)>

출처 : 『머니투데이』, 2018. 8. 9.



<업종별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2019년 기준)>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기술과 통신을 융합한 기술을 이르는 용어.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0. 10. 20.

(4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관련한 문제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3) 국가와 경제 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2]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와 같은 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Guzman and Stern(2020), “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 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32 US States, 1988-2014,”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12, No.4, pp.212~243.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99쪽 관련.
- Bashir and Akhtar(2016), “The Role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 A Study of G20 Countries,” *Management Studies and Economic Systems*, Vol.3, No.2, pp.91~100.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99쪽 관련.
- [나] : CB Insights 발표 자료(2021), <http://cbinsights.com>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다]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쪽.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74쪽.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82쪽.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20쪽.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39쪽.
- [라] : 『조선일보』, 2021. 9. 23.,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스타트업, 떡잎 되기도 전에 싹이 잘릴판」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82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관련.
 - 『경향신문』, 2021. 9. 14., 「카카오·구글 등 빅테크 규제, 독점 폐해 막는 계기 돼야」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관련.
 - 『매일경제』, 2021. 8. 4., 「“대기업 끈대 피하려다 판고서 ‘젊은’ 만났네요”……스타트업 탈출하는 MZ세대」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74쪽 관련.
 - 『머니투데이』, 2018. 8. 9., 「벤처 기업의 ‘지방 엑소더스’……“VC 찾아 서울로”」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79쪽 관련.
 - 『한국경제신문』, 2020. 10. 20., 「벤처투자 풍년 속 제조벤처는 ‘찬밥’」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72쪽 관련.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95쪽 관련.

■ 평가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제점을 모두 정확히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그래프 내용을 해석하여 기업이 정신과 혁신의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표 내용을 해석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공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최근 그 경향이 정제된 것이 경제 성장 둔화의 한 요인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30점)

[다]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상황 1 :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혁신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독점 규제라는 두 가지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상황 2 : 기업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상 관료제를 지양하고, 조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는 탈관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상황 3 :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
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가]는 기업이 정신, 혁신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혁신의 성공 사례가 적고 정체되어 있으며, 잠재 성장률 역시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라]의 상황 1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혁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지 못하면 혁신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2는 스타트업의 성장 이후 관료적인 기업 문화가 들어오면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3은 최근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보여 준다.

[다]를 근거로 상황 1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돕는 동시에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상황 2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탈관료제를 통해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상황 3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Note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심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 사이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마따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 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농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 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굴, 작은굴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 윌리엄 포크너 : 미국의 소설가로 주로 미국 남부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 심장 : 일꾼들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우두머리.

* 크로마농인 : 1868년 프랑스의 크로마농 동굴에서 발견된 최초의 현생 인류.

출처 :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출제진 재구성)

[나]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죽게 하는 것이, 그것도 개종되지 않은 채로 죽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행동이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불이나 칼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닌 도덕적 원칙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억지

로 고백하게 하고 이런저런 예배에 순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중략)……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관용의 필연성과 관용이 갖고 있는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는 아마도 좀처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결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열정에 휩싸일 때에는 그런 일에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으로 박해할 때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처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처 :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출제진 재구성)

[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인공 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인공 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 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출처 : 신유식 외, 『고등학교 국어』

(10점)

A blank coordinate grid with a vertical axis on the right. The axis is labeled with values 30, 60, 90, 120, 150, 180, and 210. The grid consists of 14 columns and 18 rows. The bottom 4 rows (from 210 down to 180) are shaded light blue.

(20점)

A blank grid for plotting a graph. The vertical axis (y-axis) is labeled from 30 to 420 in increments of 30. The horizontal axis (x-axis) is labeled from 1 to 12 in increments of 1. The grid consists of 12 columns and 13 rows of squares.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및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나와 남의 공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본질과 구조’ 부분에서 ‘문학의 유기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나와 남」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관용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와 윤리’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분야의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용에 관한 편지』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읽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길잡이’의 과제로 나온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승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44~45쪽.
- [나] : 존 로크 저 / 최유신 역(2009), 『관용에 관한 편지』, 철학과현실사, 57~59쪽.
-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182쪽 관련.
- [다] : 신유식 외(2018),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308~310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존’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공존’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나와 남의 공존을 설명한 글이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남으로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각이다. 마찬가지로 두뇌는 똑같이 큰골, 작은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른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이성에서 관용의 필연성을 설명한 글이다.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들어맞는 일이다. 하지만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거나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하며, 혹은 종교의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설명한 글이다. 인공 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또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은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
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존이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중 인물을 남으로 단정하면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남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얼굴과 두뇌를 지니고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관용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설명한 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인간의 이성에는 관용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복지와 법을 핑계로 잔인하게 박해하거나 종교의 미명 아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하면 이들은 공존할 수 없게 된다.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고통이고, 이러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체득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계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기계와 공존할 수 있다.

Note

문제 2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 두 체제에서 [라]를 수용하는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각각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를 자연권 사상에 두고 있다. 자연권 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 인권(天賦人權)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홉스, 로크 등 근대의 사회 계약론자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중략)……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그러나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의무와 공동선에 무관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아실현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이다.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할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며,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한다. 이때 관용은 다른 사람의 견해나 사상,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를 참거나 허용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룰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유주의는 이른바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기도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공동선(共同善) :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선(善). 즉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성으로 ‘공공선(公共善)’이라고도 한다.

* 관용의 역설 :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출제진 재구성)

[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대규모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대다수 시민을 생산에 대한 지배로부터 배제하는 대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선한다. 재산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고 계급 간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상에는 모두가 상당한 생활을 향유할 만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는 세계 인구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파멸적 위기와 대량 실업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사회 불안과 빈부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을 복원하여 국가 간, 인종 간 분쟁을 더욱 심화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자본가 집단이 과거의 야만성을 자극하여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모습으로 고개 들도록 조장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병폐에 대항한 운동으로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임금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사회주의는 이들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전문직 및 사무직 노동

자, 농어민, 수공업자와 소매상, 예술가와 과학자 등 점점 더 많은 시민에게 인식되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통제하는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인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경제 권력을 인민 전체의 손에 넘기고 자유인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중략)……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방임적 자본주의는, 국가의 간섭과 집단적 소유를 통해 사적 자본가의 영역을 제한하는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더 많은 인민이 계획의 필요성에 동의해 가고 있다. 사회 보장, 자유 노동조합주의, 산업 민주주의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발전은 대부분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운동가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사회주의가 강한 곳 어디에서든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조를 향한 중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프랑크푸르트 선언』(출제진 재구성)

[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중략)……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테네인들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회부합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고 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한다.

국민 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우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과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헌법, 법률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는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권력의 구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때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1784년 영국 맨체스터 근처 면화 공장의 아동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열병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열병은 아동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802년 세계 최초의 노동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제*의 건강과 풍속에 관한 법(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 도제의 지위에 있었던 아동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 노동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아동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숙소와 의복을 지급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비참한 아동 노동자들을 동정하는 여론에서 비롯된 노동법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모든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오늘날의 노동법 법제로 발전하였다.

* 도제 :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일하면서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배우는 직공을 말한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근로 조건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긴다면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노동 삼권을 보장하여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종류로서 근로 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는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 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임금과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노동법에는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 기준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최저 임금법, 근로자의 단체 결성과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 사회법 : 사회법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규제로서 '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환경법 등으로 분류된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30점)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graph paper. It features a light gray background with a blue grid. The grid consists of small square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vertical axis with numerical labels starting at 30 and increasing by 30 up to 660. The bottom-most section of the grid, corresponding to values 600 through 660, is shaded in a light blue color. The rest of the grid is whit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및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및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5)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82~185쪽.
- [나] : 김 유 편(2003),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 인간과 사회, 19~21쪽.
-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0~201쪽 관련.
- [다]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91쪽.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187쪽.
- [라] : 김왕근 외(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170쪽.
서범석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165쪽.
김왕근 외(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170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는 자유주의에 관한 글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므로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간섭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가치 안에도 자율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내용 중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드러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선언의 여러 방안 중, 제시문은 경제 권력의 인민 소유, 사회 보장, 사회주의적 계획화, 노동 권력의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국민 주권과 권력 통제를 통해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국민 스스로 통치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이고,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특히 후자가 전체주의로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결단을 통해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이 언급되어야 한다.

✓ 채점 기준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로,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를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각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두 체제 가운데 하나만 설명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0~5점
-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두 체제를 모두 설명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6~15점

❖ 문항 해설 2 (15점)

[라]는 노동법의 본질과 그 발생 근거를 설명한 글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든 민주 사회주의 체제이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하여 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그 탄생부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 보호 제도로서의 노동법 제정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물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권으로서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제정을 수용한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겪으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이를 무기력하게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 근로관계가 비록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공동선으로 여길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체제에서 [라]의 노동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노동법이 민주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노동법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와 국민 주권과 권력 통제를 통해 국민 스스로의 통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평등한 권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 하고 평등한 전체 인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강조한다.

[라]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 근로 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그 형성부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민의 해방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 보호 제도로서의 노동법 제정은 당연한 결과물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노동법은 수용된다. 근로관계가 비록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공동선으로 여길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Note

문제 3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모두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인 가구 비율 (%)	6.9	9.0	12.7	15.5	20.0	23.9	27.2
평균 가구원 수 (명)	4.1	3.7	3.3	3.1	2.9	2.7	2.5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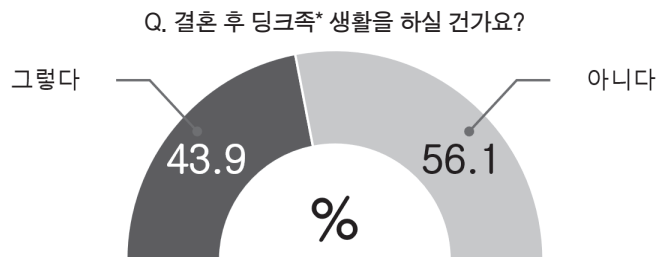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출산율 (명)	1.30	1.19	1.21	1.24	1.17	1.05	0.96
출생아 수 (만 명)	48.5	43.7	43.5	43.8	40.6	35.8	32.5

* 합계 출산율 :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출처 : 『서울경제』, 2019. 1. 20.

〈20~30대 미혼 성인 남녀 877명 설문 조사 결과〉



* 딩크족 : DINK(Double Income No Kids)+족.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출처 : 『중앙일보』, 2019. 4.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추이〉

연도	2012	2015	2018	2019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만 가구)	359	457	511	591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 (%)	17.9	21.8	23.7	26.4

출처 : 『리얼캐스트』, 2020. 12. 9.

[나]

〈분야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	산업
동물 복지	동물 병원, 동물 장례, 반려동물 카페, 동물 미용실, 홈펫시터
교육	반려동물 관리자·스타일리스트 학원, 반려동물 훈련소
제조·생산	반려동물 분양, 반려동물 사료, 케어용품, 미용 용품, 가구 등

출처 : 『무엇정보블로그』, 2017. 5. 26.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전망〉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7
시장 규모 (억 원)	17000	21400	23300	27000	30000	33000		60000

출처 : 『더벨』, 2021. 2. 15.

[다]

펫팜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지만, 정작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은 비반려인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목줄 길이 제한 ▲공원 내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원 면적과 개수에 비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도, 적발을 제때 하지 못해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상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일부 반려인과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로부터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립하기 위한 공간에 관내 근린공원이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퇴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태 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A 씨는 “개파라치, 목줄 길이 제한 등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반려견을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반려견이랑 집에만 있어야 하느냐?”라며 “안전사고 등으로 반려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과 함께 소통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견주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들이 서로 방해 받지 않도록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B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배변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면서 “따뜻해지면 점점 더 많은 반려견들이 나올 텐데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구역을 지정해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반려동물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우선 “생태 공원의 경우 그곳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 소유물이어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반려견 전용 공간을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쉽지가 않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구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해 다시 없애는 사례 등이 있었다.”라며 “일단 우리 구에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의 설치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펫팜족 :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조어.

출처 : 『서울로컬뉴스』, 2018. 3. 20.(출제진 재구성)

[라]

같은 사회 현상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사회 구조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비둘기 문제를 예로 들면,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현재 도심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비둘기를 그저 평화의 상징으로만 여기고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비둘기를 유해 동물로만 여겨 무조건 퇴치하려고 한다면 도시 생태계가 변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경과, 지역적 특성, 관련 정책이나 제도,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즉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출처 : 육근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 통합은 한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여 평등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실현하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통합은 경제 성장과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여 소외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구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사회 통합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인간은 서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한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열려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통은 결정된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공유의 과정이다.

담론은 언어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현실에서 전개되는 각종 사건과 행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 나아가 담론은 해석의 틀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에게 특정한 인식과 가치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재구성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며, 재정 활동은 세입과 세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입은 조세 및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국방, 복지,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을 지출하는 활동이다. 정부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며,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활동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있다.

출처 : 박형준 외, 『고등학교 경제』

경제적 유인이란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벌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들은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40점)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제시문 [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덩크족 선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사례와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든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순서대로 각각 통합적 관점, 사회 통합, 의사소통과 사회적 담론, 재정, 세입, 경제적 유인을 설명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73쪽.
『서울경제』, 2019. 1. 20., 「[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경제] 저출산·고령화에……‘소비감소→투자위축→저성장’ 악순환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중앙일보』, 2019. 4. 2.,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 비율 1.33 사상 최저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 『리얼캐스트』, 2020. 12. 9.,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 ‘펫 특화설계’ 주택 키워드 떠올라」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 [나] : 『무역정보블로그』, 2017. 5. 26., 「독일 반려동물 3천만 시대, ‘펫코노미’ 시장을 주목하라」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54~55쪽 관련.
 - 『더벨』, 2021. 2. 15., 「꺼져가는 신성장 불씨, 계륜인가 블루오션인가」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54~55쪽 관련.
 - [다] : 『서울로컬뉴스』, 2018. 3. 20., 「반려인 VS 비반려인 갈등 해소방법 없나」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8쪽 관련.
 - [라]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15쪽.
 -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89~190쪽.
 -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91쪽.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41쪽.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44쪽.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3쪽.

■ 평가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 [나], [다] 중 한 개의 현상만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가], [나], [다] 중 두 개의 현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4~6점
- [가], [나], [다]에 나타난 현상을 모두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7~10점

❖ 문항 해설 2 (30점)

[라]에 나타난 개념을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나타난 개념을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30점을 부여함
- [라]에 나타난 개념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9점
- [라]에 나타난 개념을 일부만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10~18점
- [라]에 나타난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19~3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
- 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덩크족 선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나]에 나타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한편, [다]에 나타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다]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은 주로 반려 문화의 미성숙과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반려인은 올바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제도 개선,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즉 반려인에게 펫티켓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펫티켓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자체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 복지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주민이 경험하게 되는 손실에 비례하는 보상이나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위한 예산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나 반려 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의 부과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Note



자연계열 논술고사

- 1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 2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3 2022학년도 논술고사

01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무엇을
평가하나요?

- 고교 수학 교과와 기본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정확한 답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과정 전반을 평가합니다.
- 풀이과정의 정도에 따라 수험생에게 부분 점수가 부여됩니다.

어떻게
출제하나요?

- 고교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적합하고 대입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합니다.
- 단순 공식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2문제로 출제하되 문제별 소문항을 2~3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소문항은 제시문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구분	제시문	난이도	답안지 양식
문제1	서술자료	하 ~ 상	답안 규격이 정해진 자유 양식 •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문제2		하 ~ 상	

평가 기준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개]

유리함수 $f(x) = \frac{k}{x-p} + q$ ($k \neq 0$)의 점근선은 두 직선 $x = p$, $y = q$ 이다.

[나]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lim_{h \rightarrow 0} \frac{f(a+h) - f(a)}{h}$$

가 존재하면 함수 $f(x)$ 는 $x = a$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다]

임의의 두 실수 a, b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 의 한 부정적분 $F(x)$ 에 대하여 $F(b) - F(a)$ 를 함수 $f(x)$ 의 a 에서 b 까지의 정적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int_a^b f(x)dx \text{ 와 같이 나타낸다.}$$

- 함수 $f(x) = \frac{x}{1-2x}$ 라 하자.
- 좌표평면에 원점 O와 네 점 $A(1,1)$, $B\left(1 + \frac{\sqrt{3}}{2}, \frac{1}{2}\right)$, $C\left(1 + \frac{\sqrt{3}}{2}, \frac{3}{2}\right)$, $D(1,0)$ 이 있다.
- 시각 t ($0 \leq t < \frac{1}{2}$)에서 점 P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 ㉗ 시각 $t = 0$ 에서 점 P의 위치는 점 A이다.
 ㉘ 점 P는 $\triangle ABC$ 의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㉙ 시각 $t = 0$ 에서 시각 $t = t_0$ 까지 점 P가 $\triangle ABC$ 의 변을 따라 움직인 거리는 $f(t_0)$ 이다.

- 시각 t ($0 \leq t < \frac{1}{2}$)에서 $\triangle ODP$ 의 넓이를 $g(t)$ 라 하자.

[문제 1] $\overline{AP} = \frac{1}{2}$ 인 시각 t 를 모두 구하시오. (단, $0 \leq t \leq \frac{7}{15}$) (15점)

[문제 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h(x)$ 에 대하여 $h(-1)$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1) $h(x)$ 는 $x = a$ 와 $x = b$ ($a < b$)에서 극값을 갖는다.

(2)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1^x h(t)dt = xh(x) - 45x^4 + 44x^3 - 12x^2 - 4 + \left(\frac{2}{ab}\right)^2 \int_a^b (4-8t)g(t)dt$$

[문제 3]

$0 < t < \frac{4}{9}$ 에서 함수 $g(t)$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t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20점)

■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 [논제 1] 유리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논제 2]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논제 3] 함수의 미분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료 출처

- 이준열 외(2020), 수학, 242-246쪽
- 류희찬 외(2020), 수학II, 122-128쪽
- 배종숙 외(2020), 수학II, 124-128쪽
- 김원경 외(2020), 수학II, 112-118쪽

■ 평가 기준

- [논제 1]
 - 점 P 위치를 제시 : 8점
 - 정답을 제시 : 7점
- [논제 2]
 - $a = \frac{1}{3}$ 과 $b = \frac{2}{5}$ 를 제시 : 6점
 - $\left(\frac{2}{ab}\right)^2 \int_a^b (4-8t)g(t)dt = 7$ 을 제시 : 6점
 - $h(x)$ 를 제시 : 4점
 - 정답을 제시 : 4점
- [논제 3]
 - $g(t)$ 를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10점

[문제 1] $\overline{AP} = \frac{1}{2}$ 이려면 점 P가 선분 AB 또는 선분 AC의 중점에 있어야 한다. 한편, $t = \frac{7}{15}$ 일 때 P의 위치는 $f(\frac{7}{15}) = 7$ 로부터 $\triangle ABC$ 의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B에 있을 때이므로 $\overline{AP} = \frac{1}{2}$ 이려면 $k = 1, 2, 3$ 과 $m = 1, 2$ 에 대하여

$$\frac{t}{1-2t} = f(t) = 3(k-1) + \frac{1}{2} \quad \text{또는} \quad \frac{t}{1-2t} = f(t) = 3(m-1) + \frac{5}{2} \quad \text{이다.}$$

따라서 $t = \frac{1}{4}, \frac{5}{12}, \frac{7}{16}, \frac{11}{24}, \frac{13}{28}$ 이다.

[문제 2] 조건 (2)의 양변을 x 에 관하여 미분하면

$$h(x) = h(x) + xh'(x) - 180x^3 + 132x^2 - 24x \quad \text{이다.}$$

$$h'(x) = 12(3x-1)(5x-2) \dots\dots\dots \textcircled{1}$$

이고,

$$h(x) = 60x^3 - 66x^2 + 24x + C \quad (C \text{는 적분상수}) \dots\dots\dots \textcircled{2}$$

이다.

식 ①로부터 $a = \frac{1}{3}, b = \frac{2}{5}$ 이다. 구간 $\frac{1}{3} \leq t \leq \frac{2}{5}$ 에서 $g(t)$ 를 구하자.

$$f\left(\frac{1}{3}\right) = 1, f\left(\frac{2}{5}\right) = 2$$

이므로 점 P는 선분 BC 위에 있다. 따라서

$$g(t) = \frac{1}{2} \left(-\frac{1}{2} + f(t) \right) = \frac{4t-1}{4-8t}$$

이고,

$$\left(\frac{2}{ab}\right)^2 \int_a^b (4-8t)g(t)dt = 225 \int_{\frac{1}{3}}^{\frac{2}{5}} (4t-1)dt = 7$$

이다. 그러므로 조건 (2)에서 $h(1) = 10$ 을 얻고, 식 ②로부터 $C = -8$ 이다.

결국 $h(-1) = -158$ 이다.

[문제 3] 먼저 닫힌구간 $\left[0, \frac{4}{9}\right]$ 에서 점 P가 점 A, B, C에 위치하는 시각은 각각

$$t = 0, \frac{3}{7}, \quad t = \frac{1}{3}, \frac{4}{9}, \quad t = \frac{2}{5}$$

이다. 이제 열린구간 $\left(0, \frac{4}{9}\right)$ 에서 $g(t)$ 를 구하자.

(1)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는 경우: t 의 범위는 $0 < t \leq \frac{1}{3}$ 과 $\frac{3}{7} \leq t < \frac{4}{9}$ 이다.

$0 < t \leq \frac{1}{3}$ 에 대하여,

$$g(t) = \frac{1}{2} \left(1 - \frac{1}{2} f(t) \right) = \frac{1}{2} - \frac{1}{4} f(t)$$

이고 $\frac{3}{7} \leq t < \frac{4}{9}$ 에 대하여,

$$g(t) = \frac{1}{2} \left(1 - \frac{1}{2} (f(t) - 3) \right) = \frac{5}{4} - \frac{1}{4} f(t)$$

(2) 점 P가 선분 BC 위에 있는 경우: t 의 범위는 $\frac{1}{3} \leq t \leq \frac{2}{5}$ 이다. 이 때

$$g(t) = \frac{1}{2} \left(-\frac{1}{2} + f(t) \right) = -\frac{1}{4} + \frac{1}{2} f(t)$$

(3) 점 P가 선분 AC 위에 있는 경우: t 의 범위는 $\frac{2}{5} \leq t \leq \frac{4}{9}$ 이다. 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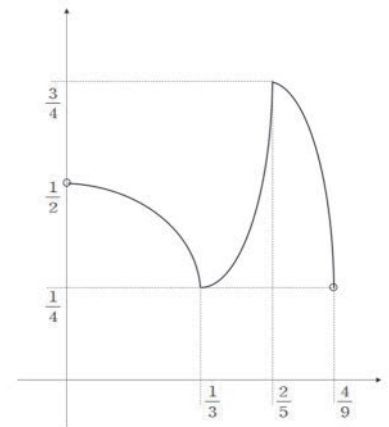
$$g(t) = \frac{1}{2} \left(\frac{5}{2} - \frac{1}{2} f(t) \right) = \frac{5}{4} - \frac{1}{4} f(t)$$

따라서,

$$G(x) = \begin{cases} \frac{1}{2} - \frac{1}{4}x, & 0 < x < 1 \\ -\frac{1}{4} + \frac{1}{2}x, & 1 \leq x < 2 \\ \frac{5}{4} - \frac{1}{4}x, & 2 \leq x < 4 \end{cases}$$

라 할 때

$$g(t) = G(f(t)) = \begin{cases} \frac{1}{2} - \frac{1}{4}f(t), & 0 < t < \frac{1}{3} \\ -\frac{1}{4} + \frac{1}{2}f(t), & \frac{1}{3} \leq t < \frac{2}{5} \\ \frac{5}{4} - \frac{1}{4}f(t), & \frac{2}{5} \leq t < \frac{4}{9} \end{cases}$$



이다. 함수 $f(t)$ 는 열린구간 $(0, \frac{4}{9})$ 에서 미분가능하고 $G(x)$ 는 $x = 1, 2$ 를 제외한 점에서 미분가능하므로 $g(t)$ 의 미분가능성은 $t = \frac{1}{3}$ 과 $t = \frac{2}{5}$ 에서만 조사하면 된다.

(i) $t = \frac{1}{3}$ 일 때,

$$\lim_{h \rightarrow 0^-} \frac{g(\frac{1}{3} + h) - g(\frac{1}{3})}{h} = -\frac{1}{4}f'(\frac{1}{3}) \neq \frac{1}{2}f'(\frac{1}{3}) = \lim_{h \rightarrow 0^+} \frac{g(\frac{1}{3} + h) - g(\frac{1}{3})}{h}$$

이므로 $t = \frac{1}{3}$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ii) $t = \frac{2}{5}$ 일 때,

$$\lim_{h \rightarrow 0^-} \frac{g(\frac{2}{5} + h) - g(\frac{2}{5})}{h} = \frac{1}{2}f'(\frac{2}{5}) \neq -\frac{1}{4}f'(\frac{2}{5}) = \lim_{h \rightarrow 0^+} \frac{g(\frac{2}{5} + h) - g(\frac{2}{5})}{h}$$

이므로 $t = \frac{2}{5}$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g(t)$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은 $t = \frac{1}{3}, \frac{2}{5}$ 이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45점)

[제시문]

[가]

곡선 $y = f(x)$ 위의 점 $(a, f(a))$ 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 f(a) = f'(a)(x - a)$$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x = a$ 에서 극값을 가지면 $f'(a) = 0$ 이다.

[대]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f'(a) = 0$ 일 때, $x = a$ 의 좌우에서

- $f'(x)$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대이고,
- $f'(x)$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소이다.

실수 a 에 대하여

$$f(x) = \frac{1}{1 + e^{-x+a}}, \quad g(x) = \frac{1}{1 + e^{x+a}}$$

라 하자.

[문제 1]

실수 t 에 대하여, 점 $(t, 0)$ 을 지나고 곡선 $y = f(x)$ 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n(t)$ 라 하고

점 $(t, 0)$ 을 지나고 곡선 $y = g(x)$ 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m(t)$ 라 하자.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의 범위를 구하시오. (20점)

$$\text{모든 실수 } t \text{에 대하여 } n(t) + m(t) > 0$$

[문제 2]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h(x)$ 를 모두 구하시오. (25점)

- (1)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x)(h''(x) - h''(0)) \geq 0$
- (2) 함수 $F(x) = h(x) - \ln f(x)$ 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문제 1]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극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료 출처

- 권오남 외(2020), 수학II, 88-95쪽
- 김원경 외(2020), 미적분, 49-57쪽, 75-84쪽, 96-105쪽
- 박교식 외(2020), 미적분, 51-60쪽, 77-84쪽, 100-111쪽

■ 평가 기준

- [문제 1]
- 접선의 방정식을 제시 : 5점
 - 접선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5점
- [문제 2]
- 조건 (1)에 의하여 다항함수 $h(x)$ 가 이차 이하임을 설명 : 5점
 - $h(x)$ 가 이차함수일 때 $F(x)$ 가 극값을 가짐을 설명 : 10점
 - 정답을 제시 : 10점

[문제 1]

곡선 $y = f(x)$ 위의 점 $(s, f(s))$ 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y = \frac{e^{-s+a}}{(1+e^{-s+a})^2} (x-s) + \frac{1}{1+e^{-s+a}}$$

이다. 이 접선이 점 $(t, 0)$ 을 지나면

$$t = -e^{s-a} + s - 1$$

이다. 따라서 $u(x) = -e^{x-a} + x - 1$ 이라 하면 $n(t)$ 는 곡선 $y = u(x)$ 와 직선 $y = t$ 의 교점의 개수이다.

함수 $u(x)$ 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x = a$	...
$u'(x)$	+	0	-
$u(x)$	↗	$a-2$	↘

위 표에서 함수 $u(x)$ 는 $x = a$ 일 때 최댓값 $a-2$ 가 된다. 그러므로

$$n(t) = \begin{cases} 0, & t > a-2 \\ 1, & t = a-2 \\ 2, & t < a-2 \end{cases} \dots\dots\dots ①$$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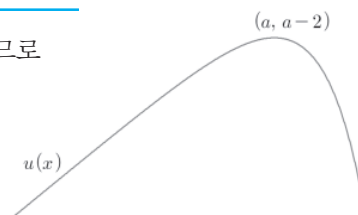
곡선 $y = f(x)$ 와 곡선 $y = g(x)$ 는 y 축에 대칭이므로 $m(t) = n(-t)$.

따라서

$$m(t) = \begin{cases} 0, & t < 2-a \\ 1, & t = 2-a \\ 2, & t > 2-a \end{cases}$$

이다.

$n(t) + m(t) > 0$ 이 성립하려면 $n(t) > 0$ 또는 $m(t) > 0$ 이어야 하고, $t \leq a-2$ 또는 $2-a \leq t$ 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실수 t 에 대하여 $n(t) + m(t) > 0$ 이 성립하려면 $a-2 \geq 2-a$, 즉 $a \geq 2$ 이어야 한다.



[문제 2]

먼저 $h(x)$ 가 삼차 이상의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h'(x)(h''(x) - h''(0))$$

가 홀수차 다항함수이므로

$$\lim_{x \rightarrow \infty} h'(x)(h''(x) - h''(0)) = \infty \text{ 와 } \lim_{x \rightarrow -\infty} h'(x)(h''(x) - h''(0)) = -\infty$$

또는

$$\lim_{x \rightarrow \infty} h'(x)(h''(x) - h''(0)) = -\infty \text{ 와 } \lim_{x \rightarrow -\infty} h'(x)(h''(x) - h''(0)) = \infty$$

이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해 $h'(x)(h''(x) - h''(0)) \geq 0$ 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한편, $h(x)$ 가 이차 이하의 다항함수일 때에는 $h''(x) - h''(0) = 0$ 이므로

$h'(x)(h''(x) - h''(0)) \geq 0$ 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h(x) = bx^2 + cx + d$ 라 하자.

이제, 조건 (2)를 만족시키는 $h(x) = bx^2 + cx + d$ 를 찾기 위해서
함수 $F(x)$ 의 극값을 살펴보자.

$$F'(x) = \frac{-e^{-x+a}}{1+e^{-x+a}} + 2bx + c = 0 \dots\dots\dots ②$$

이므로, $G(x) = \frac{-e^{-x+a}}{1+e^{-x+a}}$ 라 할 때, 방정식 ②의 해는 방정식

$$G(x) = -2bx - c \dots\dots\dots ③$$

의 해와 같다.

$$G'(x) = \frac{e^{-x+a}}{(1+e^{-x+a})^2}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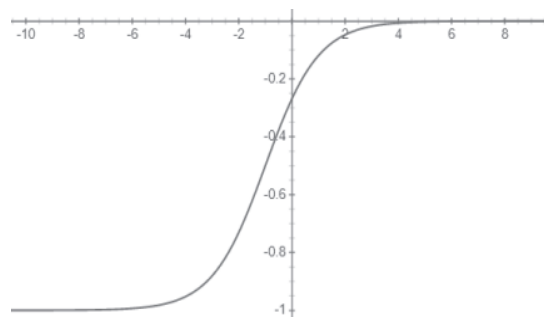
이므로 $G(x)$ 는 증가함수이고,

$$\lim_{x \rightarrow \infty} G(x) = 0, \quad \lim_{x \rightarrow -\infty} G(x) = -1$$

이므로

$$-1 < G(x)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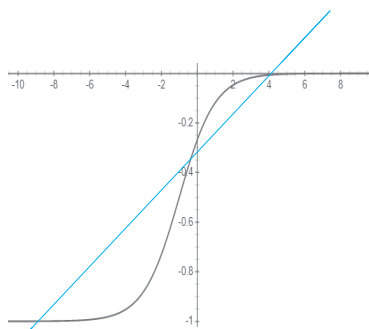
이다. 이를 바탕으로 $G(x)$ 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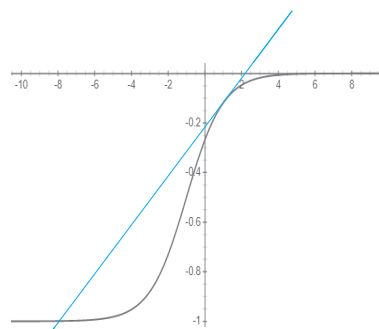
(A) $b \neq 0$ 일 때는 직선 $\ell: y = -2bx - c$ 와 곡선 $y = G(x)$ 가 만나는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i) 직선 ℓ 이 곡선 $y = G(x)$ 에 접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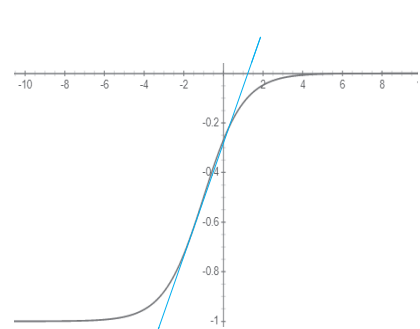
모든 교점의 좌우에서 직선 ℓ 의 그래프와 곡선 $y = G(x)$ 의 위, 아래가 바뀌므로 식 ②의 교점의 x 좌표의 좌우에서 $F'(x)$ 의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 의하여 $F(x)$ 는 모든 교점의 x 좌표에서 극값을 갖는다([그림 1]).



[그림 1]



[그림 2]



[그림 3]

(ii) 직선 ℓ 이 곡선 $y = G(x)$ 에 접할 경우: [문제 1]의 풀이의 식 ①로부터 교점은 2개 또는 1개이다.

- 교점이 2개인 경우: 접하는 점이 아닌 다른 교점 (x_0, y_0) 의 좌우에서 직선 ℓ 과 곡선 $y = G(x)$ 의 위, 아래가 바뀌므로 $F'(x)$ 는 $x = x_0$ 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그림 2]). 따라서 $F(x)$ 는 $x = x_0$ 에서 극값을 갖는다.
 - 교점이 1개인 경우: 교점의 좌우에서 $F(x)$ 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므로 교점은 변곡점이고, 따라서 직선 ℓ 과 곡선 $y = G(x)$ 의 위, 아래가 바뀐다([그림 3]). 따라서 이 경우에도 $F(x)$ 는 극값을 갖는다.
- 따라서 $b \neq 0$ 인 경우에는 조건 (2)를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h(x)$ 가 존재하지 않는다.

(B) $b = 0$ 일 때

- (i) 직선 $y = -c$ 와 곡선 $y = G(x)$ 의 교점이 존재하면 직선 $y = -c$ 와 곡선 $y = G(x)$ 의 위, 아래가 바뀐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F(x)$ 는 극값을 갖는다.
- (ii) 직선 $y = -c$ 와 곡선 $y = G(x)$ 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시문 (나)에 의해 $F(x)$ 의 극값이 없다. 이때,

$$c \geq 1 \text{ 또는 } c \leq 0$$

그러므로 조건 (1), (2)를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h(x)$ 는

$$h(x) = cx + d \quad (c \geq 1 \text{ 또는 } c \leq 0 \text{ 이고 } d \text{는 모든 실수})$$

뿐이다.

Note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가]

미분가능한 두 함수 $y = f(u)$ 와 $u = g(x)$ 에 대하여 합성함수 $y = f(g(x))$ 의 도함수는

$$\{f(g(x))\}' = f'(g(x))g'(x)$$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f'(a) = 0$ 이고 $x = a$ 의 좌우에서

- (1) $f'(x)$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은 $f(a)$
- (2) $f'(x)$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소이고, 극솟값은 $f(a)$

[다]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 $x = g(t)$ 에 대하여
 $a = g(\alpha)$, $b = g(\beta)$ 일 때 도함수 $g'(t)$ 가 α, β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int_a^b f(x)dx = \int_{\alpha}^{\beta} f(g(t))g'(t)dt$$

[문제 1] 자연수 n 에 대하여 두 함수 $f(x)$ 와 $g(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x) = nx^2e^{-x}, \quad g(x) = (f \circ f)(x)$$

x 에 대한 방정식 $g'(x) = 0$ 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 을 모두 구하시오.
 (단, e 는 2.7로 계산) (15점)

[문제 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함수 $h(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 \int_1^3 h(x)dx = 9$$

$$(2) \text{ 모든 자연수 } n \text{에 대하여 구간 } [3^n, 3^{n+1}) \text{에서 } h(x) = h\left(\frac{x}{3}\right) + 1$$

$$\int_1^{81} (h(x) + h'(x))dx \text{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3]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k(x) > 0$ 인 연속함수 $k(x)$ 와 함수

$$S(x) = \int_0^x k(t)dt$$

가 두 양수 a, b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 \int_a^b k(x) dx = 3S(a) + 3$$

$$(2) \int_a^b \frac{S(x)e^{S(x)}}{(S(x)+1)^2} k(x) dx = \frac{e^{S(a)}}{S(b)+1} \left(e^{6(S(a)+1)} - 67e^{3(S(a)+1)} + 252 \right)$$

$S(b)$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 문제풀이

[문제 1]

[논제 2]

[논제 3]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논제 1] 도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3]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고성은 외(2020), 수학 II, 61-66쪽, 72-74쪽, 83-90쪽
- 이준영 외(2020), 수학 II, 60-63쪽, 74-76쪽, 83-96쪽
- 김원경 외(2020), 미적분, 79-82쪽, 147-149쪽
- 황선욱 외(2020), 미적분, 86-89쪽, 166-167쪽

■ 평가기준

- [논제 1]
- $f'(x) = 0$ 인 x 의 값을 제시 : 5점
 - $f'(f(x)) = 0$ 인 x 의 값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 [논제 2]
- $\int_1^{81} h'(x)dx$ 의 값을 제시 : 6점
 - $\int_3^{3^2} h(x)dx$, $\int_{3^2}^{3^3} h(x)dx$, $\int_{3^3}^{3^4} h(x)dx$ 의 값을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4점

- [논제 3]
- $S(b) = 4S(a) + 3$ 을 제시 : 4점
 - 방정식 $\frac{e^{S(a)}}{4(S(a)+1)}(e^{3(S(a)+1)} - 4) = \frac{e^{S(a)}}{4(S(a)+1)}(e^{6(S(a)+1)} - 67e^{3(S(a)+1)} + 252)$ 를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6점

[문제 1]

주어진 자연수 n 에 대하여

$$f'(x) = 2nxe^{-x} - nx^2e^{-x} = nx(2-x)e^{-x}$$

이므로 다음과 같은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얻을 수 있다.

x	...	0	...	2	...
$f'(x)$	-	0	+	0	-
$f(x)$	$\searrow$	0	$\nearrow$	$4ne^{-2}$	$\searrow$

즉, 극솟값은 $f(0) = 0$ 이고 극댓값은 $f(2) = 4ne^{-2}$ 이다.

한편, 합성함수 미분법에 따라

$$g'(x) = f'(f(x))f'(x)$$

이므로 방정식 $g'(x) = 0$ 의 해는 $f'(f(x)) = 0$ 의 해 또는 $f'(x) = 0$ 의 해이다.

(i) $f'(x) = 0$ 인 경우 : 위 표로부터 $x = 0$ 또는 $x = 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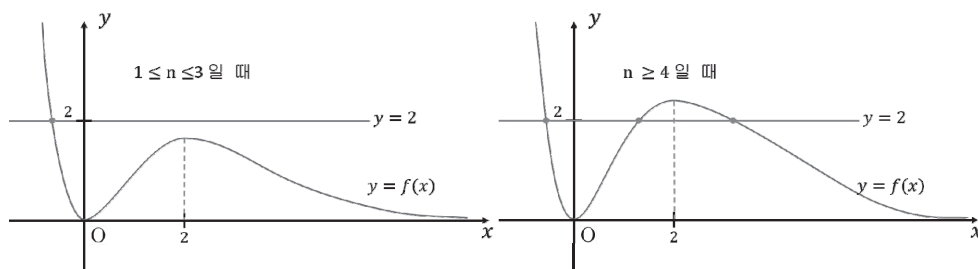
(ii) $f'(f(x)) = 0$ 인 경우 : $f(x) = 0$ 또는 $f(x) = 2$ 이다.

(a) $f(x) = 0$ 인 경우 : 함수 $f(x)$ 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양수이므로, 방정식 $f(x) = 0$ 의 해는 $x = 0$ 뿐이다.

(b) $f(x) = 2$ 인 경우 : $4ne^{-2} < 2 \Leftrightarrow n < \frac{e^2}{2} = 3.645$ ($e = 2.7$ 로 계산)

이므로 $n \leq 3$ 일 때만 방정식 $f(x) = 2$ 가 음의 해 하나만 가짐을 알 수 있다.

(i)와 (ii)에 의하여 $n = 1, 2, 3$.



[참고 그림]

[문제 2]

조건 (2)로부터

$$h(3^4) = h(3^3) + 1 = h(3^2) + 2 = h(3) + 3 = h(1) + 4$$

이므로

$$\int_1^{81} h'(x)dx = h(81) - h(1) = h(3^4) - h(1) = 4$$

조건 (1)에서 $\int_1^3 h(x)dx = 9$ 이므로

$$\begin{aligned}\int_3^{3^2} h(x)dx &= \int_3^{3^2} \left\{ h\left(\frac{x}{3}\right) + 1 \right\} dx = 3 \int_1^3 h(t)dt + (3^2 - 3) = 33 \\ \int_{3^2}^{3^3} h(x)dx &= \int_{3^2}^{3^3} \left\{ h\left(\frac{x}{3}\right) + 1 \right\} dx = 3 \int_3^{3^2} h(t)dt + (3^3 - 3^2) = 117 \\ \int_{3^3}^{3^4} h(x)dx &= \int_{3^3}^{3^4} \left\{ h\left(\frac{x}{3}\right) + 1 \right\} dx = 3 \int_{3^2}^{3^3} h(t)dt + (3^4 - 3^3) = 405\end{aligned}$$

따라서

$$\begin{aligned}& \int_1^{81} (h(x) + h'(x))dx \\ &= \int_1^{3^4} h(x)dx + \int_1^{3^4} h'(x)dx \\ &= \int_1^3 h(x)dx + \int_3^{3^2} h(x)dx + \int_{3^2}^{3^3} h(x)dx + \int_{3^3}^{3^4} h(x)dx + \int_1^{3^4} h'(x)dx \\ &= 9 + 33 + 117 + 405 + 4 \\ &= 568\end{aligned}$$

[문제 3]

조건 (1)에 의하여 $S(b) - S(a) = \int_a^b k(x)dx = 3S(a) + 3$ 이므로

$$S(b) = 4S(a) + 3 \quad \dots\dots\dots (*)$$

$S(x) = \int_0^x k(t)dt$ 에서 $S'(x) = k(x)$ 이므로

$$\int_a^b \frac{S(x)e^{S(x)}}{(S(x)+1)^2} k(x)dx = \int_{S(a)}^{S(b)} \frac{ue^u}{(u+1)^2} du = \left[\frac{e^u}{u+1} \right]_{S(a)}^{S(b)} = \frac{e^{S(b)}}{S(b)+1} - \frac{e^{S(a)}}{S(a)+1}$$

이고 (*)을 이용하면

$$\begin{aligned}\int_a^b \frac{S(x)e^{S(x)}}{(S(x)+1)^2} k(x)dx &= \frac{e^{4S(a)+3}}{4(S(a)+1)} - \frac{e^{S(a)}}{S(a)+1} = \frac{e^{4S(a)+3} - 4e^{S(a)}}{4(S(a)+1)} \\ &= \frac{e^{S(a)}}{4(S(a)+1)} (e^{3(S(a)+1)} - 4)\end{aligned}$$

(*)과 조건 (2)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을 얻는다.

$$\frac{e^{S(a)}}{4(S(a)+1)} (e^{3(S(a)+1)} - 4) = \frac{e^{S(a)}}{4(S(a)+1)} \left(e^{6(S(a)+1)} - 67e^{3(S(a)+1)} + 252 \right)$$

이로부터

$$(e^{3(S(a)+1)} - 4)(e^{3(S(a)+1)} - 64) = 0$$

여기에서 $e^{3(S(a)+1)} - 4 > e^3 - 4 > 0$ 이므로 $e^{3(S(a)+1)} = 64$ 이고

$$S(a) = 2\ln 2 - 1$$

따라서

$$S(b) = 4S(a) + 3 = 8\ln 2 - 1$$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45점)**[제시문]****[가]**

미분가능한 함수 $f(x)$ 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하여 도함수 $f'(x)$ 를 활용할 수 있다.

[나]

극한값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f(a + \Delta x) - f(a)}{\Delta x}$ 가 존재하면 함수 $f(x)$ 는 $x = a$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다]

함수 $f(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 = f(x)$ 위의 점 $P(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 f(a) = f'(a)(x - a)$

[문제 1] 방정식 $e^x - |x^2 - ex| = 0$ 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20점)

[문제 2]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1) 점 $(t, 0)$ 을 지나는 직선 ℓ 이 곡선 $y = e^x$ 에 접할 때 접점의 x 좌표를 $u(t)$ 라 하자.
 $\int_t^{u(t)} e^x dx = 1 - \frac{1}{e}$ 일 때 직선 ℓ 은 점 $(0, f(0))$ 에서 곡선 $y = f(x)$ 와 접한다.
- (2) $f\left(\frac{3}{2}\right) = \frac{5}{2}$
- (3) 곡선 $y = f(e^x)$ 는 곡선 $y = e^x$ 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

함수 $g(x) = |f(x) - x|$ 가 $x = p$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을 때, 실수 p 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논제 1] 미분을 활용하여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홍성복 외(2018). 수학II, 75-77쪽, 90-98쪽
- 류희찬 외(2018). 수학II, 52-59쪽, 67-70쪽, 78-97쪽
- 박교식 외(2019), 미적분, 100-122쪽

■ 평가기준

- [논제 1]
- $x \leq 0$ 인 경우 실근의 개수가 1인 이유를 제시 : 5점
 - $x \geq e$ 인 경우 실근의 개수가 0인 이유를 제시 : 5점
 - $0 < x < e$ 인 경우 실근의 개수가 0인 이유를 제시 : 10점

- [논제 2]
- 접선 ℓ 의 방정식을 제시 : 5점
 - 함수 $f(x)$ 의 일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제시 : 5점
 - 함수 $f(x)$ 의 삼차항과 이차항의 계수를 제시 : 10점
 - 함수 $g(x)$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을 제시 : 5점

[문제 1] $h(x) = e^x - |x^2 - ex| = e^x - |x(x - e)|$ 라 하자.

(i) $x \leq 0$ 일 때: $h(x) = e^x - x^2 + ex$ 이고 $h'(x) = e^x - 2x + e > 0$ 이므로 $h(x)$ 는 증가함수이고 $\lim_{x \rightarrow -\infty} h(x) = -\infty$, $h(0) = 1$ 이므로 방정식 $h(x) = 0$ 은 구간 $(-\infty, 0)$ 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ii) $x \geq e$ 일 때: $h(x) = e^x - x^2 + ex$ 이고 $h'(x) = e^x - 2x + e$ 이다.

$h''(x) = e^x - 2$ 에서 $x \geq e$ 일 때 $h''(x) > 0$ 이므로 $h'(x)$ 가 증가한다.

$h'(e) = e^e - e > 0$ 이므로 $x \geq e$ 일 때 $h'(x) > 0$, 즉 $h(x)$ 가 증가한다.

$h(e) = e^e > 0$ 이고 $h(x)$ 가 증가함수이므로 방정식 $h(x) = 0$ 은 구간 (e, ∞) 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iii) $0 < x < e$ 일 때: $h(x) = (e^x - ex) + x^2$ 이다.

$e^x - ex$ 는 $x = 1$ 에서 최솟값 0을 가지므로 $e^x - ex \geq 0$ 이고, $x^2 > 0$ 이므로 $h(x) > 0$ 이다. 따라서 방정식 $h(x) = 0$ 은 구간 $(0, e)$ 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i)~(iii)에서 방정식 $h(x) = 0$ 의 실근의 개수는 하나이다.

[문제 2] $y = e^x$ 위의 점 $(u(t), e^{u(t)})$ 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 = e^{u(t)}(x - u(t)) + e^{u(t)}$ 이고 이 직선이 x 축 위의 점 $(t, 0)$ 을 지나므로 $u(t) = t + 1$ 이다. 조건 (1)에서

$$\int_t^{u(t)} e^x dx = \int_t^{t+1} e^x dx = e^t(e - 1) = 1 - \frac{1}{e}$$

이므로 $t = -1$, $u(t) = 0$ 이고 접선 ℓ 의 방정식은 $y = x + 1$ 이다.

$f(x) = ax^3 + bx^2 + cx + d$ ($a > 0$)라 할 때 곡선 $y = f(x)$ 와 직선 $y = x + 1$ 이 점 $(0, 1)$ 에서 접하므로 $f(0) = d = 1$ 이고 $f'(0) = c = 1$ 이다. 따라서 $f(x) = ax^3 + bx^2 + x + 1$ 이다.

한편, 조건 (2)로부터 $b = -\frac{3}{2}a$ 이므로 $f(x) = ax^3 - \frac{3}{2}ax^2 + x + 1$ 이다.

$e^x = z$ 라 하면 $z > 0$ 이고, 조건 (3)에서 $y = az^3 - \frac{3}{2}az^2 + z + 1$ 과 $y = z$ 가 구간 $(0, \infty)$ 에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 즉, $y = az^3 - \frac{3}{2}az^2 + 1$ 과 $y = 0$ 이 구간 $(0, \infty)$ 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

$$\lim_{z \rightarrow 0+} \left(az^3 - \frac{3}{2}az^2 + 1 \right) = 1, \quad \lim_{z \rightarrow \infty} \left(az^3 - \frac{3}{2}az^2 + 1 \right) = \infty$$

이므로 곡선 $y = az^3 - \frac{3}{2}az^2 + 1$ 과 직선 $y = 0$ 이 점 $(z_0, 0)$ 에서 접하는 $z_0 > 0$ 가 존재한다.

따라서 $3az_0^2 - 3az_0 = 0$, $az_0^3 - \frac{3}{2}az_0^2 + 1 = 0$ 이어야 하므로 $z_0 = 1$ 이고 $a = 2$ 이다.

그러므로 $f(x) = 2x^3 - 3x^2 + x + 1$ 이다.

함수 $g(x) = |f(x) - x| = |2x^3 - 3x^2 + 1| = |(x - 1)^2(2x + 1)|$, 즉

$$g(x) = \begin{cases} (x-1)^2(2x+1), & x \geq -\frac{1}{2} \\ -(x-1)^2(2x+1), & x < -\frac{1}{2} \end{cases}$$

따라서 $x \neq -\frac{1}{2}$ 일 때는 함수 $g(x)$ 가 미분가능하다. 그러나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g\left(-\frac{1}{2} + \Delta x\right) - g\left(-\frac{1}{2}\right)}{\Delta x} = -\frac{9}{2}, \quad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g\left(-\frac{1}{2} + \Delta x\right) - g\left(-\frac{1}{2}\right)}{\Delta x} = \frac{9}{2}$$

이므로 함수 $g(x)$ 는 $x = -\frac{1}{2}$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p = -\frac{1}{2}$ 이다.

Note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55점)**[제시문]****[가]**

미분가능한 함수 $f(x)$ 의 역함수 $f^{-1}(x)$ 가 존재하고 이 역함수가 미분가능할 때,

$$(f^{-1})'(x) = \frac{1}{f'(f^{-1}(x))}$$

[나]

함수 $f(x)$ 에서 x 의 값이 a 가 아니면서 a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이 일정한 값 L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 는 L 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L 을 $x=a$ 에서의 함수 $f(x)$ 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_{x \rightarrow a} f(x) = L \quad \text{또는} \quad x \rightarrow a \text{일 때 } f(x) \rightarrow L$$

과 같이 나타낸다.

[다]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 $x = g(t)$ 에 대하여 $a = g(\alpha)$, $b = g(\beta)$ 일 때 도함수 $g'(t)$ 가 α, β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int_a^b f(x)dx = \int_{\alpha}^{\beta} f(g(t))g'(t) dt$$

[문제 1]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 \ln x + 2x^2 + ax + b$ 가 역함수를 갖고, 0이 아닌 실수 L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1} \left((f^{-1})'(x) \times \left\{ \ln \frac{f^{-1}(x)}{f^{-1}(1)} \right\}^2 \right) = L$$

일 때, $a + b + L$ 의 값을 구하십시오. (단, a, b 는 상수) (15점)

[문제 2]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g(x)$ 에 대하여 함수 $h(x) = \frac{(x-2)g'(x)}{g(x)}$ 와 0이 아닌 실수 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1) $\lim_{x \rightarrow 2} h(x) = 2$

(2) $\lim_{x \rightarrow c} h(|x|)$ 가 존재하지 않는다.

(3) $g(c) = 18c$

$g(2c)$ 의 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 3]

함수 $k(x) = x + \sin x$ 에 대하여 함수 $F(t)$ 와 상수 α, β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1) F(t) = \int_0^{\pi t} \cos(k^{-1}(y)) dy$$

(2) α 는 $0 < t < 8$ 에서 $F(t)$ 가 극댓값인 t 의 값 중 가장 큰 값

(3) β 는 $0 < t < 8$ 에서 $F(t)$ 가 극솟값인 t 의 값 중 가장 큰 값

$F(\beta) - F(\alpha)$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 [문제 1]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문제 2]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문제 3] 극값을 판정하고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홍성복 외(2020), 미적분, 102-103쪽
- 이준열 외(2020), 수학 II, 12-13쪽, 60-68쪽, 83-89쪽
- 고성은 외(2020), 미적분, 132-134쪽

■ 평가기준

- [문제 1]
 - $a = -4$ 를 제시 : 5점
 - $b = \frac{5}{2} + \ln 2$ 를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 [문제 2]
 - $g(x) = (x-2)^2(x+r)$ 를 제시 : 5점
 - $c = -1$ 을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5점
- [문제 3]
 - 극값을 갖는 $k^{-1}(\pi t)$ 의 값을 제시 : 5점
 - $\alpha = \frac{13}{2} + \frac{1}{\pi}$, $\beta = \frac{15}{2} - \frac{1}{\pi}$ 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10점

[문제 1]

$f^{-1}(x) = y$ 라 하면 $f(p) = 1$ 인 양의 실수 p 가 존재하여

$$\lim_{x \rightarrow 1} \left((f^{-1})'(x) \times \left\{ \ln \frac{f^{-1}(x)}{f^{-1}(1)} \right\}^2 \right) = \lim_{y \rightarrow p} \left\{ \frac{1}{f'(y)} \times \left(\ln \frac{y}{p} \right)^2 \right\} = L \neq 0$$

을 만족시킨다. $\lim_{y \rightarrow p} \ln \frac{y}{p} = 0$ 이므로 주어진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lim_{y \rightarrow p} f'(y) = f'(p) = 0$$

이다. 함수 $f(x)$ 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모든 양수 x 에서 $f'(x) \geq 0$ 이거나 모든 양수 x 에서 $f'(x) \leq 0$ 이어야 한다. 그런데 $f'(x) = \frac{1}{x} + 4x + a$ 에서 $\lim_{x \rightarrow \infty} f'(x) = \infty$ 이므로 모든 양수 x 에서 $f'(x) \geq 0$ 이어야 한다. $f'(p) = 0$ 이므로 $f'(p)$ 는 $f'(x)$ 의 최솟값이다. 따라서 $f''(p) = -\frac{1}{p^2} + 4 = 0$ 이므로 $p = \frac{1}{2}$ 이다.

$f'\left(\frac{1}{2}\right) = 2 + 2 + a = 0$ 이므로 $a = -4$ 이다. 또한 $f\left(\frac{1}{2}\right) = \ln \frac{1}{2} + \frac{1}{2} - 2 + b = 1$ 이므로 $b = \frac{5}{2} + \ln 2$ 이다.

$$L = \lim_{y \rightarrow \frac{1}{2}} \left\{ \frac{1}{f'(y)} \times \left(\ln \frac{y}{p} \right)^2 \right\} = \lim_{y \rightarrow \frac{1}{2}} \frac{\left(\ln y - \ln \frac{1}{2} \right)^2}{\frac{1}{y} + 4y - 4} = \lim_{y \rightarrow \frac{1}{2}} \left\{ \left(\frac{\ln y - \ln \frac{1}{2}}{y - \frac{1}{2}} \right)^2 \times \frac{y}{4} \right\} = \frac{1}{2}$$

이므로 $a + b + L = -1 + \ln 2$ 이다.

[문제 2]

조건 (1)에서 $\lim_{x \rightarrow 2} (x-2) \frac{g'(x)}{g(x)} = 2$ 이므로 $g(2) = 0$ 이다. 따라서 $1 \leq k \leq 3$ 인 자연수 k 와 $p(2) \neq 0$ 인 $(3-k)$ 차 다항식 $p(x)$ 에 대하여

$$g(x) = (x-2)^k p(x)$$

$g'(x) = k(x-2)^{k-1} p(x) + (x-2)^k p'(x)$ 로부터

$$\begin{aligned} \lim_{x \rightarrow 2} \left\{ (x-2) \frac{g'(x)}{g(x)} \right\} &= \lim_{x \rightarrow 2} \left\{ (x-2) \frac{k(x-2)^{k-1} p(x) + (x-2)^k p'(x)}{(x-2)^k p(x)} \right\} \\ &= \lim_{x \rightarrow 2} \frac{kp(x) + (x-2)p'(x)}{p(x)} \\ &= k \end{aligned}$$

이고 $k = 2$ 이다. 따라서 상수 r ($r \neq -2$)에 대하여

$$g(x) = (x-2)^2(x+r) \quad \dots\dots\dots (*)$$

그러므로

$$h(|x|) = \frac{3|x| + 2r - 2}{|x| + r} = \begin{cases} \frac{3x + 2r - 2}{x + r}, & x \geq 0 \\ \frac{-3x + 2r - 2}{-x + r}, & x < 0 \end{cases}$$

이고 조건 (2)에 의하여 $c = r$ ($c < 0$) 또는 $c = -r$ ($c > 0$) 이어야 한다. 따라서 $r < 0$ 이어야 한다. 그런데 $c = -r$ 이면 $g(c) = 0$ 이 되므로 조건 (3)에 모순이다. 따라서 $c = r$ ($r < 0$, $r \neq -2$) 이다.

$$g(c) = g(r) = (r-2)^2(2r) = 18r$$

로부터 $c = r = -1$ 이고

$$g(x) = (x-2)^2(x-1)$$

그러므로 $g(2c) = g(-2) = -48$

(참고)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조건 (1)로부터 $g(2) = 0$ 이다. 따라서 2차 다항식 $p(x)$ 에 대하여 $g(x) = (x-2)p(x)$ 이다.

$$\lim_{x \rightarrow 2} h(x) = \lim_{x \rightarrow 2} \frac{(x-2)p(x) + (x-2)^2 p'(x)}{(x-2)p(x)}$$

이므로, $p(2) \neq 0$ 이면 위의 극한값이 1이 되어 조건 (1)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p(2) = 0$ 이고 1차 다항식 $q(x)$ 에 대하여 $g(x) = (x-2)^2 q(x)$ 이다.

$$\lim_{x \rightarrow 2} h(x) = \lim_{x \rightarrow 2} \frac{2(x-2)^2 q(x) + (x-2)^3 q'(x)}{(x-2)^2 q(x)}$$

이고 $q(2) = 0$ 이면 위의 극한값은 3이 되어 조건 (1)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g(x) = (x-2)^2(x+r)$, ($r \neq -2$) 이다.

[문제 3]

함수 $F(t)$ 를 미분하면,

$$F'(t) = \pi \cos(k^{-1}(\pi t)) \dots\dots\dots (**)$$

그런데 $k'(x) = 1 + \cos x \geq 0$ 이므로 함수 $k(x)$ 는 증가함수이고 $k^{-1}(x)$ 도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t \in (0, 8)$ 이면 $k^{-1}(\pi t) \in (0, 8\pi)$ 이므로 (**)에서

$$k^{-1}(\pi t) = \frac{\pi}{2}, \frac{3\pi}{2}, \frac{5\pi}{2}, \frac{7\pi}{2}, \frac{9\pi}{2}, \frac{11\pi}{2}, \frac{13\pi}{2}, \frac{15\pi}{2} \dots\dots\dots (***)$$

일 때 $F'(t) = 0$ 이다. 또한,

$$F''(t) = -\pi \sin(k^{-1}(\pi t)) \frac{d}{dt} k^{-1}(\pi t)$$

여기에서 $k^{-1}(\pi t) = x$ 라 하면 $\pi t = k(x) = x + \sin x$, 즉, $\frac{dt}{dx} = \frac{1}{\pi}(1 + \cos x)$ 이므로

$\frac{d}{dt} k^{-1}(\pi t) = \frac{\pi}{1 + \cos(k^{-1}(\pi t))}$ 이다. 따라서

$$F''(t) = -\frac{\pi^2 \sin(k^{-1}(\pi t))}{1 + \cos(k^{-1}(\pi t))}$$

여기에서 (***)를 만족시키는 t 에서는

$$\cos(k^{-1}(\pi t)) = 0$$

$$\sin(k^{-1}(\pi t)) = \begin{cases} 1, & k^{-1}(\pi t) = \frac{\pi}{2}, \frac{5\pi}{2}, \frac{9\pi}{2}, \frac{13\pi}{2} \\ -1, & k^{-1}(\pi t) = \frac{3\pi}{2}, \frac{7\pi}{2}, \frac{11\pi}{2}, \frac{15\pi}{2} \end{cases}$$

여기에서 $k^{-1}(\pi t) = \frac{\pi}{2}, \frac{5\pi}{2}, \frac{9\pi}{2}, \frac{13\pi}{2}$ 이면 $F''(t) < 0$ 이므로 함수 $F(t)$ 는 극댓값을 갖고,

$k^{-1}(\pi t) = \frac{3\pi}{2}, \frac{7\pi}{2}, \frac{11\pi}{2}, \frac{15\pi}{2}$ 이면 $F''(t) > 0$ 이므로 함수 $F(t)$ 는 극솟값을 갖는다.

그런데 $k^{-1}(\pi t)$ 는 t 의 증가함수이므로

$$\alpha = \frac{1}{\pi}k\left(\frac{13\pi}{2}\right) = \frac{13}{2} + \frac{1}{\pi}, \quad \beta = \frac{1}{\pi}k\left(\frac{15\pi}{2}\right) = \frac{15}{2} - \frac{1}{\pi}$$

따라서

$$F(\beta) - F(\alpha) = F\left(\frac{15}{2} - \frac{1}{\pi}\right) - F\left(\frac{13}{2} + \frac{1}{\pi}\right) = \int_{\frac{13}{2}\pi + 1}^{\frac{15}{2}\pi - 1} \cos(k^{-1}(y))dy$$

여기에서 $k^{-1}(y) = x$ 로 치환하면 $y = k(x) = x + \sin x$ 이므로

$$k\left(\frac{13}{2}\pi\right) = \frac{13}{2}\pi + 1, \quad k\left(\frac{15}{2}\pi\right) = \frac{15}{2}\pi - 1, \quad dy = (1 + \cos x)dx \text{ 에서}$$

$$F(\beta) - F(\alpha) = \int_{\frac{13}{2}\pi}^{\frac{15}{2}\pi} \cos x (1 + \cos x)dx = \int_{\frac{13}{2}\pi}^{\frac{15}{2}\pi} \left(\cos x + \frac{\cos(2x) + 1}{2}\right)dx = \frac{\pi}{2} - 2$$

Not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45점)

[제시문]

[가]

두 변수 x, y 의 관계를 새로운 변수 t 를 이용하여

$$x = f(t), \quad y = g(t)$$

와 같이 나타낼 때, t 를 매개변수라 한다.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f'(a) = 0$ 이고 $x = a$ 의 좌우에서

$f'(x)$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a)$ 는 극값이다.

[다]

두 함수 $f(x), g(x)$ 가 미분가능하고 $f'(x),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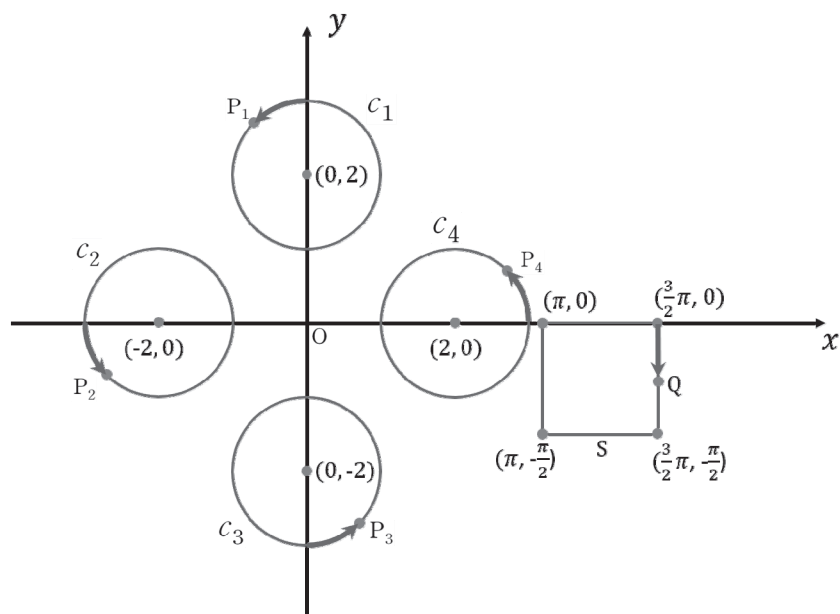
$$\int_a^b f(x)g'(x)dx = \left[f(x)g(x) \right]_a^b - \int_a^b f'(x)g(x)dx$$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각각 $(0, 2), (-2, 0), (0, -2), (2, 0)$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개의 원 C_1, C_2, C_3, C_4 와 꼭짓점이 $\left(\frac{3}{2}\pi, 0\right), \left(\frac{3}{2}\pi, -\frac{\pi}{2}\right), \left(\pi, -\frac{\pi}{2}\right), (\pi, 0)$ 인 정사각형 S 가 있다.

실수 t ($t \geq 0$)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를 이동하는 5개의 점 P_1, P_2, P_3, P_4, Q 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좌표평면 위의 네 점 $R_1(0, 3), R_2(-3, 0), R_3(0, -3), R_4(3, 0)$ 에 대하여 점 P_i 는 $t = 0$ 일 때 점 R_i 를 출발하여 t ($t > 0$)초 동안 원 C_i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t 만큼 이동한다.
(단, $i = 1, 2, 3, 4$)
- 점 Q 는 $t = 0$ 일 때 점 $\left(\frac{3}{2}\pi, 0\right)$ 을 출발하여 t ($t > 0$)초 동안 정사각형 S 위를 시계 방향으로 t 만큼 이동한다.



출발 후 t 초가 경과했을 때,

- 두 점 P_1 과 P_3 사이의 거리를 $\ell(t)$
- 사각형 $P_1P_2P_3P_4$ 의 넓이를 $A(t)$
- 삼각형 P_1P_3Q 의 무게중심의 x 좌표를 $f(t)$

라 하자.

[문제 1]

$$a = \int_0^{\frac{\pi}{2}} (\ell(t))^4 dt - 40 \int_0^{\frac{\pi}{2}} (\ell(t))^2 dt + 200\pi \text{라 하자.}$$

$0 < t < a$ 에서 함수 $A(t)$ 의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2]

$$\int_{\frac{\pi}{2}}^{\frac{3\pi}{2}} A(t)(f(t))^2 dt - 10 \int_0^{\pi} (f(t))^2 dt \text{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논제 1] 매개변수를 이해하고 극값을 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정적분의 성질과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고성은 외(2020), 미적분, 85-86쪽, 137-139쪽
- 박교식 외(2020), 미적분, 91-93쪽, 140-145쪽
- 최부림 외(2020), 수학 II, 83-96쪽

■ 평가기준

- [논제 1]
- $\ell(t)$ 를 제시 : 5점
 - $A(t)$ 를 제시 : 5점
 - $a = 64\pi$ 임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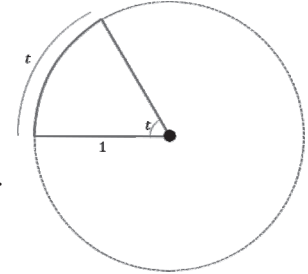
- [논제 2]
- 점 Q를 제시 : 7점
 - $f(t)$ 를 제시 : 8점
 - 정답을 제시 : 10점

[문제 1]

반지름이 1 이므로, 호의 길이가 t 이면 중심각은 t 이다.

실수 $t \geq 0$ 에 대하여 점 P_1, P_2, P_3, P_4 의 좌표는

$$\begin{aligned} P_1(-\sin t, 2 + \cos t) & \dots\dots\dots (*) \\ P_2(-2 - \cos t, -\sin t) \\ P_3(\sin t, -2 - \cos t) \\ P_4(2 + \cos t, \sin t) \end{aligned}$$



이므로 $(\ell(t))^2 = (-2\sin t)^2 + (4 + 2\cos t)^2 = 20 + 16\cos t$ 이다.

그러므로

$$a = \int_0^{\pi} ((\ell(t))^2 - 20)^2 dt = 256 \int_0^{\pi} \cos^2 t dt = 128 \int_0^{\pi} (1 + \cos 2t) dt = 64\pi$$

한편

$$\overline{P_1P_2} = \overline{P_2P_3} = \overline{P_3P_4} = \overline{P_1P_4} = \sqrt{(-\sin t + 2 + \cos t)^2 + (2 + \cos t + \sin t)^2} = \sqrt{10 + 8\cos t}$$

이므로 사각형 $P_1P_2P_3P_4$ 는 모든 변의 길이가 $\sqrt{10 + 8\cos t}$ 이고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두 대각선의 길이는

$$\overline{P_1P_3} = \overline{P_2P_4} = \sqrt{20 + 16\cos t}$$

로 같으므로 사각형 $P_1P_2P_3P_4$ 는 정사각형이다. 따라서 $A(t) = 10 + 8\cos t$ 이고 $A(t)$ 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A'(t) = -8\sin t = 0$ 에서 $t = \pi, 2\pi, \dots, 63\pi$ 이다. 각 점의 좌우에서 $A'(t)$ 의 부호가 바뀌므로, $A(t)$ 의 극값은

$$A(t) = \begin{cases} 18, & t = 2\pi, 4\pi, \dots, 62\pi \\ 2, & t = \pi, 3\pi, \dots, 63\pi \end{cases}$$

그러므로 구간 $0 < t < 64\pi$ 에서의 함수 $A(t)$ 의 모든 극값의 합은 $18 \times 31 + 2 \times 32 = 622$ 이다.

[문제 2]

모든 $0 \leq t \leq \frac{3}{2}\pi$ 에 대하여 점 Q 의 좌표는

$$\begin{cases} Q\left(\frac{3\pi}{2}, -t\right), & 0 \leq t \leq \frac{\pi}{2} \\ Q\left(2\pi - t, -\frac{\pi}{2}\right), & \frac{\pi}{2} \leq t \leq \pi \\ Q\left(\pi, t - \frac{3\pi}{2}\right), & \pi \leq t \leq \frac{3\pi}{2} \end{cases} \dots\dots\dots (**)$$

그러므로, (*)과 (**)을 이용하면 함수 $f(t)$ 는

$$f(t) = \begin{cases} \frac{\pi}{2}, & 0 \leq t \leq \frac{\pi}{2} \\ -\frac{1}{3}t + \frac{2\pi}{3}, & \frac{\pi}{2} \leq t \leq \pi \\ \frac{\pi}{3}, & \pi \leq t \leq \frac{3\pi}{2} \end{cases}$$

따라서,

$$\begin{aligned}
 & \int_{\frac{\pi}{2}}^{\frac{3\pi}{2}} A(t)(f(t))^2 dt - 10 \int_0^{\pi} (f(t))^2 dt \\
 &= \int_{\frac{\pi}{2}}^{\pi} A(t)(f(t))^2 dt + \int_{\pi}^{\frac{3\pi}{2}} A(t)(f(t))^2 dt - 10 \int_{\frac{\pi}{2}}^{\pi} (f(t))^2 dt - 10 \int_0^{\frac{\pi}{2}} (f(t))^2 dt \\
 &= \int_{\frac{\pi}{2}}^{\pi} A(t)(f(t))^2 dt - 10 \int_{\frac{\pi}{2}}^{\pi} (f(t))^2 dt + \frac{\pi^2}{9} \int_{\pi}^{\frac{3\pi}{2}} (10 + 8\cos t) dt - \frac{5}{4}\pi^3
 \end{aligned}$$

먼저

$$\begin{aligned}
 & \int_{\frac{\pi}{2}}^{\pi} A(t)(f(t))^2 dt - 10 \int_{\frac{\pi}{2}}^{\pi} (f(t))^2 dt \\
 &= \frac{8}{9} \int_{\frac{\pi}{2}}^{\pi} (t - 2\pi)^2 \cos t dt \\
 &= \frac{8}{9} \int_{\frac{\pi}{2}}^{\pi} (t^2 - 4\pi t + 4\pi^2) \cos t dt
 \end{aligned}$$

여기서,

$$\int t^2 \cos t dt = t^2 \sin t + 2t \cos t - 2 \sin t + c_1, \quad \int t \cos t dt = t \sin t + \cos t + c_2$$

이므로 (c_1, c_2 는 적분상수)

$$\begin{aligned}
 & \int_{\frac{\pi}{2}}^{\pi} A(t)(f(t))^2 dt - 10 \int_{\frac{\pi}{2}}^{\pi} (f(t))^2 dt \\
 &= \frac{8}{9} [t^2 \sin t + 2t \cos t - 2 \sin t]_{\frac{\pi}{2}}^{\pi} - \frac{32\pi}{9} [t \sin t + \cos t]_{\frac{\pi}{2}}^{\pi} + \frac{32\pi^2}{9} [\sin t]_{\frac{\pi}{2}}^{\pi} \\
 &= \frac{16}{9} + \frac{16}{9}\pi - 2\pi^2
 \end{aligned}$$

또한

$$\frac{\pi^2}{9} \int_{\pi}^{\frac{3\pi}{2}} (10 + 8\cos t) dt = \frac{\pi^2}{9} (5\pi + 8[\sin t]_{\pi}^{\frac{3\pi}{2}}) = \frac{5}{9}\pi^3 - \frac{8}{9}\pi^2$$

그러므로

$$\begin{aligned}
 \int_{\frac{\pi}{2}}^{\frac{3\pi}{2}} A(t)(f(t))^2 dt - 10 \int_0^{\pi} (f(t))^2 dt &= \frac{16}{9} + \frac{16}{9}\pi - 2\pi^2 + \frac{5}{9}\pi^3 - \frac{8}{9}\pi^2 - \frac{5}{4}\pi^3 \\
 &= \frac{16}{9} + \frac{16}{9}\pi - \frac{26}{9}\pi^2 - \frac{25}{36}\pi^3
 \end{aligned}$$

Note

PART
IV

논술고사 준비 Tip

논술고사 준비 로드맵

전형관련 기본사항 점검

- 2022년 3월~
- 입학안내 홈페이지 → 2023학년도 신입학 주요사항 → 내용 확인
- 모집단위별 인원 및 전년도 경쟁률 등을 정확히 파악
- 전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강평영상 학습

모의논술고사 출제문제/논술자료 분석

- 2022년 6~7월 중
- 모의논술고사 신청 및 응시
- 모의논술고사 가이드 답안을 활용하여 자체 채점, 강평영상 반복 청취, 스스로 보완점 찾기
-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참고하여 본격 논술고사 준비 돌입

원서 접수

- 2022년 9월 중순(수시 모집요강 참조)
- 수시 원서 접수
- 대학 간 논술고사 일정 중복 여부 확인

시험장소/시간 확인 논술고사 응시

- 2022년 11월 중순(수시 모집요강 참조)
- 고사 3일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고사장/고사시간 반드시 확인
- 수험생 유의사항, 준비물 및 교통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논술고사 당일 최소한 1시간 전 고사장 도착 권장
-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대학 인근의 교통량 폭주로 지각자 매년 발생)
-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류만 가능(연필 또는 샤프는 사용할 수 없음)
- 답안 수정 시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수정테이프, 펜류는 수험생이 준비
- 수험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사당일 지참
-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2022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고교 교사의 제언

구분	자문단	문항별 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1	1-2	2	3	
오전고사	채OO 선생님(안양 P고교)	중하	중	상	중상	100%
	이OO 선생님(수원 C고교)	중	중	중상	중	
	이OO 선생님(안산 G고교)	하	중하	중상	상	
	윤OO 선생님(성남 S고교)	중하	중	중상	중	
오후고사	채OO 선생님(안양 P고교)	중	중	중	중상	
	이OO 선생님(수원 C고교)	중상	중상	중하	중	
	이OO 선생님(안산 G고교)	하	중하	중상	중상	
	윤OO 선생님(성남 S고교)	중하	중	중상	중	

“철저히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

단국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어, 사회 교과와 다양한 과목에서 학습하는 주제들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교과 간 융합 주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과목과 사회 교과와 여러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학습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채OO 선생님(안양 P고교)

단국대학교 논술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고사를 풀어보고 문제 유형을 연습한다면 사교육 도움 없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할 때 인터넷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단행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시문의 수준은 교과서와 수능특강 수준이므로 수능 준비 정도만 하여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이OO 선생님(안산 G고교)

단국대학교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단국대학교는 오랜 기간 논술전형 관리역량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논술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문제는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 바탕을 두고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충실히 받는 것으로 논술 준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자료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교육 도움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윤OO 선생님(성남 S고교)

2022학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고교 교사의 제언

구분	자문단	문항별 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1	1-2	1-3	2-1	2-2	
오전고사	오OO 선생님(부천 S고교)	중	중하	상	중	상	100%
	최OO 선생님(수원 T고교)	중하	중하	상	중상	상	
	김OO 선생님(수원 S고교)	중하	중	중상	중하	중상	
오후고사	오OO 선생님(부천 S고교)	중	중	상	중	중	
	최OO 선생님(수원 T고교)	중	상	중상	중	상	
	김OO 선생님(수원 S고교)	중상	상	상	중	중상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와 유형이 그대로 논술고사로 이어져!”

단국대학교 논술 문항은 교과서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출제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리를 배우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배운 후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수능 기출 문항과의 연계성이 높아서 학생들은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마다 시행하는 모의논술고사를 꼭 풀어보길 권합니다. 모의논술고사는 그 해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범위 및 유형)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OO 선생님(부천 S고교)

단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시문을 이용하거나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능이나 모의논술고사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여러 대학 가운데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부담이 적은 논술고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화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국대학교는 모의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수시 논술고사에 반영하는 만큼 매해 제공하는 모의논술고사 자료를 통해 연습해 볼 것을 적극 권합니다.

- 최OO 선생님(수원 T고교)

단국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술 출제방식과 유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논술고사 문제’를 다운 받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 ‘가이드 답안’과 ‘논술고사 강평영상’을 보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단국대 합격’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화룡점정, 바로 ‘모의논술고사’입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기에 ‘모의논술고사’보다 더 좋은 참고 자료는 없습니다.

- 김OO 선생님(수원 S고교)

단국대 논술, 이렇게 준비했다!

합격생이 알려주는 단국대 논술 준비 노하우!

☑ 인문계열

| 무역학과 김OO |

독해력 + 자신의 논리 + 논리 구조 적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논술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독해력, 자신의 논리, 논리구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논술을 치르며 저는 이 세 가지 조합을 활용한 저만의 특화된 개요 작성 훈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논리적인 글을 적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의 개요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문장을 미괄식으로 적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두괄식으로 길게 늘어지지 않는 문장을 적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장을 완성한 후 주술 관계가 어색하지는 않은지, 자신이 선택한 단어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논술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답을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문체와 문법도 무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저는 주어진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능력만 있어도 좋지만,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구조, 논리구조, 사고 구조, 표현이 드러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국대 논술에서는 1-1번의 주제어를 맞추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평소에 독해력을 많이 길러놓는 것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독한 후 지문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주요 단어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2번 지문과 비교했을 때 맞는지 아닌지 자세히 확인하며 개요를 작성한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험 당일에 여러 기출문제들을 챙겨가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적어놓은 포스트잇이나 노트를 확인하며 준비시간 동안 놓치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작성요령이나 가이드 답안을 챙겨가 계속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구조가 계속 인식되도록 하는 식의 방법을 추천드려요.

| 영미인문학과 이OO |

합격의 비밀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논술에 투자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제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단국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단국대 합격 비결을 묻는다면 전 0.1초의 고민 없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학교의 논술 기출문제는 합격의 이정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술학원에 따로 다니지도, 인강을 듣지도 않았습니니다. 수능 다음 날부터 논술고사 당일 새벽까지 기출문제와 가이드 답안만 분석하였고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3개년 모의논술고사로 연습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방대한 배경지식과 화려한 글 솜씨보다 주어진 제시문, 도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려 깔끔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가이드 답안과 비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습니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원고지를 채워 나가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 경영학부 전00 |

논술 합격의 비법은 기출문제 분석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학교의 면접 경험도 있고, 논술전형으로 지원해서 지원했던 학교들 대부분에 합격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단국대학교는 특히 제가 어려서부터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고 아웃풋과 위상 역시 훌륭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국대 논술고사 합격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것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평소 꾸준히 독서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글의 토대를 잡고 완성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글을 쓰기 위해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가이드 답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이드 답안과 유사한 답안을 쓰기 위해 단국대학교 논술 문제 가이드 답안 30개를 의뢰했습니다. 가이드 답안에는 출제진의 의도와 이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어서 나중에 시험에 임했을 때 출제진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단국대 논술고사는 틀이 정해져 있고 3개의 문제가 나오며 크게 중심 단어 선별 후 요약, 도표 활용 문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만의 틀을 완성했다면 충분히 1번과 2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도표 문제는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도표 문제는 도표 제목에서 보이는 문제들의 긍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은 특별히 재능의 영역, 사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이드 답안을 통해 누구나 분석과 연습을 반복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정00 |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글을 잘 쓴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글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의 방향을 논술우수자전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도전했던 첫 논술 연습에서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답이 있고 요구하는 방향이 있는 시험에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해도 이미 저에 자리 잡은 좋지 않은 글쓰기 습관들이 깔끔한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가 넘치는 지문 안에서 정답을 찾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술전형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실 문제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가장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국대학교에서는 비교적 짧은 글로 정확한 정답을 깔끔하게 쓰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3달 전까지 같은 문제들을 연습했고, 가이드 답안과 제 답안을 비교했으며, 새로운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어휘나 문장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수능이 끝난 뒤 제가 썼던 글을 읽어보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작성해 보는 것으로 연습을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정답을 찾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당해야 했습니다. 안배해 둔 시간이 무너지자 다시금 불안해졌지만, 다 쓰기라도 하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다시 시간을 분배하고 글을 적어 제출하고 시험장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에 시험장을 나오면서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불안했던 마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능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인은 합격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전형에 지원하신 분들 모두 교정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교육과

고00

저는 단국대학교 유튜브 논술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했어요. 그리고 해당 연도 모의논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 총 4개를 분석하며 답안을 작성했어요. 작년 모의논술과 작년 오전, 오후 논술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며 단국대학교 논술의 전체적인 글 구조와 틀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논술 1번 제시문에서 단어를 찾는 문제에서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를 통해 주제를 찾는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문을 1~2회 읽어보는 것, 기출문제를 통한 제시문 및 도표 분석을 반복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법학과

조00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단국대학교 논술 예비번호를 받았었고, 재수를 하면서 단국대학교 논술에 최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가이드 답안과 대조해 보며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만의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논술과 사회 탐구의 기본 개념만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면,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모의논술 및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교육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학과

조00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출문제의 답안이었습니다. 논술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문을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연습과 더불어 또 왜 이런 답안이 나온 것인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또한 평가 기준과 가이드 답안을 활용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논술을 준비할 때에는 가이드 답안을 이정표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강00

단국대 논술을 독학으로 공부하며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기본을 충실히 지키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국대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주제어나 개념어를 활용하여 최대한 핵심을 담아 간결히,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충실히 서술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핵심을 담아 간결히 적는 기본에 집중하고, 화려한 필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논술을 공부할 때 논술전형자료집으로 자기 체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답을 찾는 사고 과정을 만들어간다면 합격증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육과

신00

저는 2개 연도 논술전형 자료집을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가이드 답안을 볼펜으로 한 문제당 10번씩 필사했는데 필사를 반복하다 보면 유형이 보입니다. 단국대가 어떤 식의 서술을 좋아하는지 그 유형을 찾게 되면 논술 시험에서 유리합니다. 솔직히 저는 울산 사람이어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논술 준비도 잘 되어 있을 텐데 뒤처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습니다. 고가의 학원을 가지 않아도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시험 한 달 전에 필사 10번씩 해서 붙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이 어쩔 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학과

홍00

단국대학교 논술의 경우 학교가 추구하는 문제 유형과 원하는 답안의 틀이 있어 저는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비교해 보며 문제 유형을 눈에 익혔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한 나의 답안을 써보고 가이드 답안과 비교하며 답안을 수정해나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답안을 수정한 다음 그 문제의 가이드 답안을 여러 번 필사 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답안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경쟁률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시험에 임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식 '암기력'이 아닌 수학적 '이해도'입니다.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능에 부담을 적게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부담과 함께 마음 편히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적어도 최근 3개년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국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흐름과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다면, 다음은 단국대학교 당해 모의논술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모의논술을 통해 그 해 논술고사 문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올지 유추할 수 있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가이드 답안과 본인의 풀이를 꼭 비교해 보세요. 가이드 답안과 본인의 풀이를 비교해 보면 보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문제를 통해 출제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수학적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풀다 보면 본인의 답안이 점점 간결해지며 가이드 답안과 비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수학에서 좌표를 알고 있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흔히 말하는 '신발 끈 공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다면 바로 적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수능에서 쓰일 법한 일명 '치트키' 공식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학적 '이해도'가 얼마나 되느냐의 것이지, 공식 '암기력'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해 모의논술과 최근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가이드 답안과 비교해 본다면 단국대학교 수리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한 수능 공부, 그게 바로 논술 준비입니다.

단국대학교 논술고사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과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별도의 논술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의 사교육보다는 수능을 준비하며 기본에 충실하게 개념을 익혀나가며 수학 실력을 차근차근 쌓는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논술 준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수능 공부에서 익힌 개념들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수능 공부를 할 때 문제 풀이를 위한 단순 공식 암기, 간편 풀이 방법은 논술고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 풀이 편법 공식 등은 논술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 다소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백지에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해 보고 이해하는 등의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과정은 정답을 찾기만 하는 수능 시험과 논술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또,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꾸준히 풀이하는 것도 추천해요. 문제를 많이 접할 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유연해지고 정확한 답을 맞지 못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명시하여 부분 점수를 높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모의논술과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풀어보길 추천드리며 채점 기준 및 가이드 답안을 꼭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단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

전자전기공학부

박OO

단국대학교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고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 영역에서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 수생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라면 먼저 수능과 마찬가지로 논술 문제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 전년도 문제들과 모의논술을 많이 풀어보고 해당 유형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식이라도 어떻게 이 식이 유도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증명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과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학교육과

김OO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을 간결하되 명확해야 하게 적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과정을 잘 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정리나 명제를 증명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싶습니다. 논술고사의 경우, 정답을 맞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도 유심히 살펴봄을 통해 논술 문제의 풀이를 적어내는 상황에서 명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기출문제와 해당 연도 모의논술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논술고사는 전년도 논술고사와 매우 유사했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화학공학과

김OO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수능 후 3일 뒤에 치러져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전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모의논술과 실제 논술의 난이도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의논술을 3개월 정도 열심히 풀며 준비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까다로운 문제를 막힌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이므로 어려운 문제는 넘기고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풀기를 추천드려요.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학의 기본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면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논술을 준비하며,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며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적어도 3개월 기출은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파이팅!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OO

저는 수능을 보고 급히 단국대 논술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려웠던 수능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저에게 최고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국대 입학처에 있는 논술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는 논술고사를 준비한다면 필수로 풀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단국대 논술전형을 준비함에 있어 유튜브 채널에서 논술 관련 강평과 설명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전개 방식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원고지에 어떻 전개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원고지에 써보면서 가이드 답안과 비교하고 채점 기준을 반복하여 상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전기공학부

전OO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차곡 차곡 쌓아가면 논술 준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술 문제의 풀이 방식은 수능 수학 문제를 풀 때 생략하던 계산 과정이나 증명을 써서 풀이해야 하는 방식이기에 평소 논술 기출문제를 풀 때는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노력하고, 이를 가이드 답안과 비교하여 본인의 풀이에서 빠진 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공부하면 논술전형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학공학과

조OO

처음부터 단국대학교 수리논술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시를 위해 수학 공부를 하다 진짜 수학 공부하는 정답이 나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풀이에서 잘못된 사고과정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수학 공부이며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논술은 수학에 소질 있고 타고난 아이들만 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수능 기출을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수학 내신에서 반 1등을 하고 수능 때도 처음으로 높은 수학 등급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논술이라는 두 글자에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수능 기출을 풀고 분석하며 사고력과 집중력을 기른 후 단국대학교 논술 자료집만을 활용해도 충분하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 묻고 답하기(Q&A)

Q 논술고사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인문계열은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3문제가 출제되며,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가 출제되며,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됩니다.
단국대학교 논술고사의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전년도 기출문제와 모의논술고사 출제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와 출제유형이 논술고사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해연도 모의논술고사 출제문제 풀이 및 강평영상 반복 시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논술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30%이며, 논술고사 성적은 70%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등급간 반영되는 점수차이가 대단히 미미하여 1등급(30점)과 6등급(28.5점)의 반영점수 차이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논술고사가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논술에 강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Q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지원 시 수능은 꼭 응시해야 하나요?

- A** 논술우수자 전형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검정고시 합격자도 논술우수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해당 전형은 검정고시 합격자 뿐만 아니라 외국고교 졸업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와 외국고교 졸업자 모두 우리 대학 비교내신 산출 방법에 따라 논술고사 점수를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논술고사 성적이 좋으면 학생부 교과성적 환산점수도 높게 반영되니 논술고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Q 논술고사 답안 작성 시 연필, 샤프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답안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필, 샤프, 색갈있는 펜은 사용하지 수 없으며, 답안 교정시에는 답안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고사당일 연습지(A4용지 3장)가 함께 제공되니 연습지에 답안에 잘 정리한 후 답안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편할 것입니다.